A QUALITATIVE STUDY OF THE ALIEN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 TOWARD EUCHARISTIC HOSPITALITY AND EUCHARISTIC COMMUNITY OF FAITH

A Professio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Hogeun Kang

May 2019

This Professional Project completed by

Hogeun Kang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Haejung Park, Chairperson

Namjoong Kim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19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F THE ALIEN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 TOWARD EUCHARISTIC HOSPITALITY AND EUCHARISTIC COMMUNITY OF FAITH

by

Hogeun Kang

This project starts from a question 'Are Korean churches open to everyone?'. It listened to and analyzed the experienc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worship services or structural aspects of churches. The result revealed the lack of church members' awareness and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hurch and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thus experiencing inconvenience,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This study theoretically examined cosmopolitan hospitality, aiming for the mission of Jesus who showed unconditional hospitality to anyone without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Finally, it proposed the ''Hospitable Eucharist' based on cosmopolitan hospitality on all this research process.

KEYWORDS: Church, Alienation, Persons with Disabilities, Cosmopolitan Hospitality, Jesus' Hospitality, Hospital table, Eucharist Hospitality, Eucharist Community of Faith

국문 초록

본 프로젝트는 ‘한국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장애인들과 만나 예배 안에서 혹은 교회의 구조적인 부분에서 그들의 경험을 듣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장애인을 위한 교인들의 인식결여와 시스템의 부재 문제들이 드러났고, 장애인들은 이로 인해 불편함과 차별과 소외의 문제를 겪고 있음이 도출 되었다.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과 소외 없는 무조건적 환대를 보이신 예수의 사역에 지향점을 두고 코즈모폴리턴 환대를 이론적으로 고찰했다. 그리고 이 모든 연구 과정들 위에 코즈모폴리턴 환대의식을 기반으로 한 ‘성찬적 환대’를 제안하였다. 성찬적 환대는 성찬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정신이 회복된 성찬이며, 이는 신앙공동체의 다양한 차별적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키워드: 교회, 소외, 장애인, 코즈모폴리턴 환대, 예수적 환대, 성찬적 환대,

SUMMARY

The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increasing as the society becomes more complicated. Statistical data reflect this proves that the number of persons with acquired disabilities is growing much more than the number of persons born with disabilities. Churches also have many apostles with disabilities and the number is increasing. This qualitative research started with questions “What d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nk and feel inside church?’ ‘Do persons with disabilities face any inconvenience while giving worship?’ and ‘Are churches treating them all equally for public interest?”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researcher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for 4 months with 10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 he is serving.

The results of qualitative research showed that there was a lack of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hungdong First Methodist Church and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facing alienation and discrimin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such elements, this research seeks to overcome the conflict with cosmopolitanism theological cause and the theology of hospitality, heal the church as a worship community where everyone is welcomed equally, and change the church into a community for unconditional hospital for all.

First, the researcher preformed a theoretical review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 preceding stud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hurch. By analyzing the results of previously mentioned qualitative research and theoretically examining cosmopolitanism hospitality, this researcher proposed a pastoral application of ‘Hospitable Theological Eucharist’. The details of ‘Hospitable Theological Eucharist’ were as follows. First, ‘Perception Change’ of ministers and worship members. A church must be responsible to develop itself into a community that

welcomes everyone beyond the absolutization of doctrine. Next, 'Strengthening the words of Eucharist Invitation' is the second goal; by raising issues on injustice and discrimination we face among the words of Eucharist Invitation, churches must lead apostles' life to be practical in church and the world. Third, it is 'Eucharist Beyond the Formalization and Objectification.' By improving the order and method of existing formal Eucharist, churches must make everyone receiving the Eucharist bread and wine actively participate. Fourth,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Eucharist Distribution by Various Social Classes', churches should realize God's justice to ensure that no one is alienated in the Eucharist. Fifth, 'Sharing of Eucharist Offerings for Suffering Neighbors'. By reaching out to neighbors who are alienated and suffering as the disadvantaged members of society, churches must participate actively in practicing God's love.

By reminding that God offered himself full for Christians through 'Hospitable Theological Eucharist', we should reconfirm God's love and receive new power. This new power will enable us to sacrifice ourselves to resist against the injustice of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that exist inside u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helps all Christians emulate and change like Jesus Christ, who became a friend for the alienated and resisted against the act of injustice during his lifetime, instead of merely remembering him as the Messiah.

국문요약

장애인 수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하는 각종 통계 자료들은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음을 증명한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많은 장애인 성도들이 있고, 그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질적연구는 '장애인들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장애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불편함은 없는가?', '교회는 공공성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 연구를 위하여 현재 목회하고 있는 정동제일교회 장애인 성도 10 명을 4 개월간 심층 면담을 통해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 결과, 정동제일 교회 안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스템의 부재가 있었고, 장애인들은 소외감과 차별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갈등의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신학적 사유와 환대의 신학으로 이를 바라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환영 받는 예배 공동체로 치유되어, 성찬적 환대를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로 변화 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나는 장애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교회 안의 장애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질적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코즈모폴리터니즘 환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의 과정을 거쳐, '성찬적 환대'라는 목회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성찬적 환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목회자들과 예배위원들의 '시선 변화'다. 교회는 교리의 절대화를 넘어서 모든 이들이 환영 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성찬 초청의 말씀 강화'이다. 성찬 초청의 말씀 중, 현재 우리가 처한 불의와 차별적인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를 함으로써 회중으로 하여금 그들의 삶이 교회와 세상에서 실천적 삶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셋째, '형식화와 객관화 넘어의 성찬'이다. 기존의 형식적인 성찬의 순서와 방식을 개선하여,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모든 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성찬 분급으로의 참여'를 통해 성찬의 자리가 소외 받는 이가 없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다. 다섯째, '고통 받는 이웃을 향한 성찬 봉헌의 나눔'이다. 교회는 사회적인 약자로서 소외 받고 고통 받는 이웃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적 환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힘을 공급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차별, 소외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구주로서만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 생애 동안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사회를 향해서 끝까지 저항하셨던 예수의 모습을 잊어선 안 된다. 이제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데, 이 연구가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I

서론

A. 문제 제기

나는 한 명의 조카가 있다. 그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자폐아이다. 형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양육의 대부분을 맡고 계시다. 조카는 교회를 여러 번 옮긴 끝에 지금의 교회에 정착했다. 나는 손자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찾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하신 수고를 잘 알고 있다. 교회의 문턱은 장애인에게 높았다. 장애인이 교회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정받고,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를 나는 조카를 통해서 배웠다.

얼마 전,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서 나와 로비에 들어섰을 때였다. 먼발치서 안내위원과 실랑이중인 한 노인을 보았다. 마침 다른 성도들과 인사하며 안부를 묻는 상황이라 정확히는 알 수 없었으나, 검은 안경을 끼고 있고 흰지팡이[1]를 들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시각장애인이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로비에 크게 울렸다. "정동제일교회는 뭔가 다를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부천에서 여기까지 세 시간을 왔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 드리는 동안 곁에서 도움을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고는 자신이 들고 있던 흰 지팡이로 로비 바닥을 '딱! 딱!' 두 번 내려치고 돌아서서 교회 밖으로 나가버렸다. 누구도 따라나서는 이가 없었다. 심지어 나조차도 그 노인을 따라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안내위원은 혼잣말인지, 나에게 자신의 응대가 정당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인지

---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의 상징, 흰 지팡이를 아시나요?"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August 31, 2016, https://blog.naver.com/kead1/220800517484, (Accessed October 11, 2018).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휴, 어째 조용하다 했어. 매 주일 저런 양반들이 오지 않을 때가 없어. 결국 저러다가 밥 얻어먹고 차비 달라고 성화야… 답이 없어 답이…” 이런 일이 안내위원들에게는 일상이었던 것 같다. 당시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발길을 돌렸지만, 그 후로 아주 오랫동안 노인이 두드렸던 지팡이 소리가 마음에 남았다. 노인이 집으로 돌아가며 느낀 감정은 어떠했을까?

현재 교회공동체는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떠한 문제 의식도 갖고 있지 않다. ‘장애인 교회’, ‘장애인 선교’, ‘장애인 복지’라는 용어는 일반적 용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용어는 논점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거나 그들 중심이 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편견의 요소도 자리하고 있다.

사실 조금만 사유를 깊게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차별성’이 엄연히 존재한다. 누군가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스스로는 ‘비장애인’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와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우리 사회가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장애인’이라는 명사 안에 한 인간의 개별성, 고유성 그리고 존엄성이 집단화 되어 버린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The disabled(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People with disability(장애를 가진 사람)라는 단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2]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장애인이라는 용어 하나에도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이 연구의 목적이 장애를

---

[2] Brian Combe, "Why we are disabled people, not people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Arts Online*, July 25, 2015, https://www.disabilityartsonline.org.uk/why-we-are-disabled-people-not-people-with-disabilities. (Accessed March 14, 2019).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모두가 거리낌 없이 함께 하는 공동체성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과 문제 제기로 내 목회 현장인 정동제일교회로 접근하여,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한 학문적 성찰을 시작한다. 그 이해는 정동제일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연구로 이어지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교회의 장애인 신앙생활에 대한 객관적 바라봄의 과정이다. 한국교회의 장애인들에 대한 선행연구사를 통해 그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정서를 연구할 것이다. 특히, 신앙생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예배의 환경과 요소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노력이 연구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다. 그 다음, 정동제일교회에 출석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문제 제기에 대한 논의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B. 논지와 토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교회는 사람들이 자의로 모여서 형성한 임의 단체가 결코 아니다. 교회라는 술어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으로 '불러낸다'라는 동작의 주어가 곧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이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자들의 공동체가 곧 교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물음이 되어야 한다.[3]

박해정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주어가 하나님 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예배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예배는 예배자의 주관적 결정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성례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주어(Subject)가 되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시기에 가능한 사건으로, 예배는 은혜의 선물이다.”[4]

이 은혜의 선물은 성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이 존엄한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즉 예배에 소외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소외’라는 말보다 현대의 무력감을 더 정확하게 포착하거나 더 잘 표현하는 단어는 없다. “나는 소외되었다”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사회와의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5]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장애인들이 소외를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는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지, 교회는 공공성을 가지고 모든 이들이 차별과 배제 없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는지 연구함에 목적을 둔다.

---

[3]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비극을 넘어서*, trans. 김쾌상 (서울: 전망사, 1984), 213.

[4] 박해정,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through Preaching and Worship 강의 중, 06/06/2017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강의실 Bulter 201 호에서.

[5] John Stott,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trans. 정옥배 (서울: IVP, 2005). 107.

장애인 수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하는 각종 통계 자료들[6]은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현재의 어느 누구도 미래의 잠재적인 장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반영될 때 우리는 인간성의 회복을 말할 수 있다.[7]

'함께-살아감'은 21세기 신학과 목회가 다루어야 할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주제다.[8]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한 노력과 사상이 '코즈모폴리터니즘'이다. 이는 우리의 시선 변화를 요청한다. '나'와 '타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새롭게 정립하고, 또한 새롭게 타자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코즈모폴리턴 시선'[9]이다. 이를 기독교적인 시선으로 전환하여 표현하자면 '모든' 사람을 신이 창조한 존엄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시선'이고 '정의의 시선'이다.

바울의 복음은 교회 공동체가 보편주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10]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한다. 이것은 공공의 필요에서 나온 자매/형제성으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한다는

---

[6]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2014 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490,406 명으로 그 비율은 전체 인구의 4.8%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질환과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지닌 비율은 전체 추정장애인구 중 87.7%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uoted in 양혜린 et al., "차별경험과 자기효능감이 후천적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조건부 과정 모델링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의 역할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vol. 27 no. 3 (2017): 90.

[7]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 장애인과 일반인의 의식*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01), 21.

[8]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149.

[9] Ibid., 131.

[10] 로마서 10:12 (현대인의 성경).

이유이다.[11] 한국교회가 보편성과 공공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와 같은 소리들은 교회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강력한 증거이고 위기의 순간이라는 반증이다.

"5 점 만점에 2.55 점."[12] 이것은 2017 년 한국교회의 신뢰도 점수다. 한국 개신교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 안팎으로 자명하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거대한 무너짐을 탄식하는 것보다 새로운 지향점을 찾아내고 그곳에 이르는 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현재의 위기에서 한국교회를 즉각적으로 구해 줄 수 있는 마법이 아니라, 현재의 구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13]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없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는 신분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 또는 성별이나 인종 또는 피부 색깔에 따른 차별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다른 피조물에 대하여 갖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갖는 통치권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야 말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평등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억압과 착취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러한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14]

---

[11]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비극을 넘어서*, 206.

[12] 조성돈, "국민들이 기독교에 답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March 27, 2018. https://cemk.org/7926/ (Accessed September 14, 2018).

[13] 양희송, *다시, 프로테스탄트: 한국교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서울: 복있는사람, 2012), 161.

[14] 박흥순 et al., *다문화교육 매뉴얼 – 다문화사회 이야기 마당* (서울: 꿈꾸는터, 2017), 156.

예수는 배제하는 자나 배제 당하는 자가 없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쳤다. '아흔 아홉'이라는 숫자가 다수임에 틀림없지만, 지금 이 공동체에서 배제된 채 곤경에 처한 저 한 영혼마저 끝까지 찾아가서 함께 품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예수는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나님은 죄 없다 하신 인간들을 의인/죄인 양분하여 차별하던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향해 분노하고 애통해 했다. 어둠은 빛으로만 이길 수 있고 그늘은 햇빛으로 지울 수 있다.[15]

기독교가 제도화된 종교로서 굳어지기 이전에 기독교의 모체가 되었던 것은 예수 정신을 실천하며 살고자 했던 이들의 '평등공동체'였으며,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되었던 이들의 '해방공동체'였던 것이다. 이러한 평등적이고 해방적 전통이 없었다면,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많은 이들이 기독교에서 그 희망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다.[16]

예수의 정신과 사역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은혜의 요소를 고백하며 평등과 정의 공동체를 실현시켜 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역할임에도 우리는 예수의 공동체가 아닌 세상의 공동체의 성향과 사조를 답습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상의 경쟁과 그로 인한 생존의 수레바퀴 가운데서 소외의 감정을 양산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의 만연함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회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

[15] 백소영, "기독교 안에 깃든 차별의 민낯과 그늘들,"기*독교사상* vol. 673 (2015): 41

[16]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13-114.

소외[17]는 고유한 신학적 혹은 성서적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성서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소외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에덴으로부터의 추방, 인간과 자연과의 대립, 가인과 아벨의 갈등과 증오, 언어의 불일치가 보여 주는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 우상을 숭배하는 왕과 하나님께 백성들을 인도하려는 선지자들의 상황 가운데서 말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죄를 범했다는 바울의 고백에서도 소외는 존재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서에 소외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으며,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경험의 소외들이 경험되기도 한다. 또한 소외는 우리 인간들이 교회 안에서 저지르는 범죄로 이해된다.[18]

또한 소외는 경제적, 정치적 무력함의 감정이다. 제도화 된 권력의 불가항력이 소외된 자들에게 무자비하게 달려들지만, 보통은 그것을 정지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그 방향이나 속도를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속수무책이라고 느끼는 상황이 전개된 것을 그저 구경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이 소외이다.[19] 그렇다면 소외는 장애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경험될까?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한국장애인 인권헌장[20] 제 1 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상황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이 천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소외와 차별은 멈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17] ‘소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각주 61-68 에 해당하는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18]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I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45.

[19] John Stott,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trans. 정옥배 (서울: IVP, 2005), 107.

[20] 계룡시의회, “장애인인권헌장,” 계룡시웹사이트, https://www.gyeryong.go.kr/html/kr/life/life_060501.html (Accessed October 13, 2018).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의시설은 분명 과거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은 여전히 '낯선 사람들'로 여겨진다. 더구나 장애인의 몸은 그냥 다른 몸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몸', '비정상적인 몸'으로 여겨진다. 장애인이 많은 사회공간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바라보게 된다.[21]

강남순은 자신을 '기독인'으로 규정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거로써 예수를 이야기한다:

>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기독인'으로 규정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이다. 그러므로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중심에 있는 예수가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실천하라고 하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것은 기독교를 교리적 경계 안에 갇힌 종교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서 살아 있는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데 참으로 중요하다.[22]

인간은 모두가 어떤 외형적 조건과는 무관하게 인간으로서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받고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권리는 우리가 정의라고 부르는 모든 다른 사물과 같이 불가시적 인격에서의 인간과 관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권리는 절대로 타인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존경 받아야 할 인격적 권리 아래서 보호되어야 한다.[23] 이제 우리는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

[21] Susan Wendell, *The Rejected Body: feminist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disability 거부당한 몸*, trans. 강진영, 김은정, and 황지성 (서울: 그린비, 2013), 6.

[22]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44.

[23] Emil Brunner, *Gerechtigkeit 정의와 사회 질서*, trans. 전택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97.

실현 불가능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도전과 저항이 있어야 한다. 강남순은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코즈모폴리터니즘 담론과 예수의 가르침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불가능성의 가치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권력 구조가 얽히고설킨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권력에의 욕구를 지닌 인간 조건들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실천하기란 불가능하다. 예수는 나를 사랑하듯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며, 삶의 현장에서의 배고픔, 목마름, 헐벗음, 이방인 됨, 병듦, 감옥에 갇힘 등과 같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어떠한 경계도 긋지 말고 환대하고 돌보라고 하며, 또한 타자를 무한히 용서하라고 한다. 이는 예수의 '불가능성에 대한 열정'이다. 이처럼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임과 환대를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는 '불가능성에의 열정'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24]

기독교 코즈모폴리터니즘은 '예수의 연민의 시선'을 따르기 위한 철학적 담론이자 사회정치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25] '예수를 따른다' 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라는 제도화된 종교가 지닌 교회와 전통을 인식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는 외면적인 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지녀야 한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바라본 연민의 시선을 배우는 것'이다. 예수와 조우한 이들의 변화는 예수가 행한 교리 강론이나 훌륭한 설교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예수가 보여준 깊은 '연민의 시선'으로부터 그들은 변화의 태동을 시작했다.[26] 하지만, 시선으로만 변화와 구원을 이끌 수는 없다. 예수는 변화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현장에 서 있었고, 몸소 실천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C. 청중

---

[24]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49.
[25] Ibid., 131-32.
[26] Ibid., 160.

나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이전에 내 사역과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사람이었다. 특히 교회현장의 익숙함에 젖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차별, 불평등, 소외와 같은 잘못된 관행에 한없는 관대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1차 청중은 나 자신이다. 이 연구는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사역을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 어떠한 목회를 지향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내 목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를 기대하며 연구를 준비하겠다.

둘째로, 이 연구의 2차 청중은 정동제일교회 동역자다. 내가 사역하는 정동제일교회에는 많은 동역자가 있다. 이 교회는 134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교회로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역량과 감리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따라서 동역자들이 올바르고 바람직한 목회적 소양과 목회철학을 갖게 된다면, 보다 선한 영향력과 풍성한 열매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이 연구의 과정과 결과와 이를 통한 결단과 실행은 결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연구의 과정 가운데 함께 고민하고, 또한 연구의 결과를 함께 공유하며 앞으로 교회 현장에서 장애인들을 늘 염두에 두고 목회한다면 명확하고 빠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이 연구의 3차 청중은 교회 안에서 차별 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이다. 연구의 대상은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적용의 확장성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가 소외 받아온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꿈꾼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청중이 된다. 이 땅에는 다양한 교회들이 있다. 교단, 교리, 규모, 설립연도, 지역 등의 차이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큰 범주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그동안 성장주의와 물량주의, 세속주의에 젖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변화되어 소외되고 차별 받는 자들을 향하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D. 연구의 범위와 제한

이 연구는 내가 목회하고 있는 정동제일교회를 중심으로 기술된다. 우선 교회론의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연구된다. 또한 장애인들에 대한 객관적인 사료들을 분석하여, 장애인들의 보편적 사유에 접근한다. 그리고 장애인 성도 10 명을 4 개월간 심층 면담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갈등과 아픔과 소외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개선의 방향성을 찾는다. 중요한 것은 이 연구는 코즈모폴리턴적 관점에서의 신학적 사유와 환대의 신학을 통해서 이해되고 해석된다. 끝으로, 이를 통해 예수의 식탁으로의 초대와 교회공동체의 성찬적 환대 방법을 제안한다.

질적 연구를 택한 것만으로도 이 연구는 분명한 연구 범위가 있음을 말한다. 우선 연구 범위는 내가 사역하고 있는 정동제일교회로 제한한다. 또한 장애인 역시 본 교회의 출석교인 10 명으로 제한할 것이다. 이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서 교회 내의 차별과 억압과 폭력과 잘못된 인식의 구조들을 살핀다. 특히 교회에 오는 이유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 중에 그들이 느끼는 소외감에 집중한다. 왜냐하면 예배의 은혜와 예배 안에서의 회복이야말로 교회를 다시 서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 대상은 정동제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또한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차별이 있겠지만, 교회 내의 차별의 문제만을 다룬다.

E. 논문의 독창성과 공헌

한국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 일례로, 부활절 이후 3 주차에 장애인선교주일이 있지만, 이를 지키는 교회는 거의 없다. 심지어 모든 교회력을 따르는 정동제일교회마저도 장애인선교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떠한 관심과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분명한 질문과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코즈모폴리턴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시도와 이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혹은 예배에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알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결국 연구의 방향대로 간다면 장애인들도 소외 받지 않게 되는 예배환경의 변화와 모든 이를 환대하는 '예수의 식탁으로의 초대 – 성찬적 환대'를 경험할 수 있다. 이는 교회안에서의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는 분명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F. 논지의 흐름

제 1 장인 '서론'에서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학자들의 견해와 함께 논의한다. 또한 이 논문의 예상하는 청중과 연구의 범위와 제한 그리고 논문의 독창성과 공헌을 설명한다.

제 2 장인 '장애인'에서는 장애인의 정의, 장애의 분류, 성서에서의 장애를 가진 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교회 내 장애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알아본다.

제 3 장인 ‘질적 연구 방법 및 절차’에서는 연구자가 시무하고 있는 정동제일교회(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출석중인 장애인 성도 70 여 명 중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이들 10 명과 심층 인터뷰를 하고, 질적 연구절차에 따라 연구 결과 및 분석을 한다.

제 4 장인 ‘코즈모폴리턴 환대’에서는 질적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코즈모폴리턴 환대에 대해서 고찰한다.

제 5 장인 ‘성찬적 환대’에서는 질적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 4 장의 코즈모폴린턴 환대의 이론을 근거로 한 실천적 방법을 제안한다.

제 6 장인 ‘결론 및 제언’에서는 한국 교회가 성찬적 환대를 가져야 하는 이유를 재론하고, 이 연구를 통한 개인적인 성찰과 배움에 대해 기술한다.

Chapter Ⅱ

장애인

한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대한 판단 근거 중 하나가 사회복지 정책과 그 시행임을 볼 때, 오늘날 한국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시행 되는 것은 한국이 선진국에 다가서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회적 약자에 장애인들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매년 4 월 20 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한다. 이 날을 전후로 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아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 사회법이나 사회구조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연중행사일 뿐이다. 일 년 중 단 며칠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쉽기만 하다. 특히 여전히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과거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미미하다. 장애부서가 있는 교회는 드물고, 장애인을 위한 예배가 구축되어 있는 교회는 지극히 적다. 교회는 이제 사회적 약자에 늘 관심을 두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적극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A. 장애인의 정의, 장애의 분류, 성서에서의 장애인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개별법마다 입법 목적에 따라 다른데, 2017 년에 일부 개정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 복지법 법률 제 2 조 1 항)[27]로 정의한다.

변용찬은 그의 논문에서 미국, 영국, 독일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미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방해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 이러한 장애의 기록을 가진 자; 또는 그러한 장애를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실질적이고 장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입은 자”로, 독일은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심적 건강이 여섯 개, 육 개월 이상 그 연령에 전형적인 상태와는 상이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회에서의 생활참여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있는 자”로 정의하였다.[28]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서는 ‘정신지체인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 Person)을 결의하고, 1975 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을 채택하였다. UN 은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은 그 장애의 원인, 특질 및 그 정도에 상관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29] 그러나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외에 우리가 숙고할 장애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동등한 인격체를 가진 한 인격체인 그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이다.

---

[27] 김태선,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가?” *대전투데이*, November 18, 2018.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23671#09SA (Accessed September 24, 2018).

[28] 변용찬, “미국, 영국, 독일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 (Winter 2006):, 24-25, quoted in 신동천, “장애인 가정을 위한 기독교교육” (Ph.D. diss., 안양대학원, 2015), 180.

[29] UN 인권 위원회(편), *인권과 장애*, trans. 이용섭 (한국 DPI, 1992): 41, quoted in 이회능,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교육에 관한 기독교적 접근,” *기독교교육정보* vol. 9 (2004): 116-17.

2. 장애의 분류

2017 년 발표된 장애인 복지법 제 2 조에 따르면, 장애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30] 그것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이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각 장애마다 특징이 있는데 지체장애는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지체장애는 출생 때부터 신체의 이상이 생겨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인으로 살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근육의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중도장애인들도 있다. 정신장애는 워낙 다양하고 정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주로 정신분열증, 불안장애, 인격장애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제한된 관심이나 행동영역에서 기능적 결함을 가진다.

3. 성서에서의 장애인

신구약성서를 살펴보면 장애인에 관한 기록이 구약에 89 회, 신약에 74 회, 총 163 회 등장한다. 이 중 구약성서에는 시각장애가 47 회, 지체장애가 27 회, 청각장애가 15 회 등장하고, 신약성서에는 시각장애가 33 회, 지체장애가 32 회, 그리고 청각장애가 9 회 등장한다.[31]

성서는 장애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성서에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같이 지음 받은 존재라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창세기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다:

---

[30] 장애인 복지법 법률 제 15270 호, 2017. 12. 19., 일부개정

[31] 이계윤, *장애인 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특수교육연구소, 1996), 120.

>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32]

이와 같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존재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사실에는 공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33]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신체적(physical), 정신적(mental), 영적(spiritual)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이회능은 그의 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분리해서 보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보며, 마찬가지로 인간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보는 것도 모순이다."[34]라고 주장한다.

B. 교회 내 장애인에 대한 선행연구

1. 장애인의 자존감과 신앙 성숙도

이명희는 그의 논문 *장애인들의 자존감과 신앙 성숙도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인의 자존감과 신앙생활과의 관계는 매우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명희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신앙 성숙도와 자존감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장애인의 자존감은 부(父)와 모(母) 사이에서는 부의 신앙이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는

---

[32] 창세기 1:26-28 (개역개정).

[33]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4), 209, quoted in 이회능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교육에 관한 기독교적 접근," 121.

[34] Ibid., 123.

설문 연구를 통해 장애 정도와 신앙 성숙도의 관계는 무의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의 괄목할 만한 연구 결과는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35]

2. 한국교회 장애인에 대한 의식의 문제

한국장애인연구소장인 김해용 목사는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하지 않는 이유 10 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첫째, 장애인 사역을 교회 본연의 사명이 아닌 부수적인 사역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때문이다. 셋째, 교회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자세 때문이다. 넷째,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기보다는 큰 교회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장애인 사역에 대한 담임목회자의 인식부족 때문이다. 여섯째, 장애인 사역을 위한 전문 교역자와 교사, 그리고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장애인 사역자들의 평생사역에 대한 의지결여와 교회의 지원이 약하기 때문이다. 여덟째, 장애인 선교의 사역을 선교회의 사역으로 국한시키기 때문이다. 아홉째,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열째, 신학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36]

위의 10 가지 이유의 핵심은 한국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의 문제이다. 한국교회 안에는 여전히 장애인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의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 잘못된 성서

---

[35] 이명희, "장애인들의 자존감과 신앙 성숙도 관한 연구" (M.A. thesis,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9), 72-74.

[36] 김해용,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하지 않는 10 가지 이유," *참좋은군사*, March 30, 2006. https://blog.naver.com/jjkkhh2232/50002948923 (Accessed November 22, 2018).

해석으로 인한 부정적인 장애인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관이 만연해 있다. 실제로 장애인을 위한 목회적 돌봄은 교회적 차원이 아닌 사회봉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승현은 경인지역 27 개 교회 436 명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교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조사'[37]라는 설문을 통해 교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연구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표 1,2,3 으로 도출했다.

(표 1) 2001 년 출판된 표준 새번역에서 장애인 관련용어가 바뀐 것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	Frequency	Percent
모두 알고 있다	41	9.4%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203	46.6%
전혀 알지 못했다	192	44.0%
Total	436	100%

(표 2) 교회에서 목회자가 장애인을 주제로 얼마나 자주 설교하는가

설교횟수	Frequency	Percent
1 달에 1-2 번	28	6.4%
6 개월에 1-2 번	97	22.2%
1 년에 1-2 번	122	28.0%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189	43.3%
Total	436	100%

(표 3) 장애인을 설교본문으로 잡는다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 설교하는가

설교주제	Frequency	Percent

[37] 이승현, "한국 교인들의 교회적 가치관이 장애인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M.A. thesis, 감신대학교 대학원, 2003): 31-32.

영적 장애인이 되지 말자	214	49.1%
예수님처럼 장애인과 함께하자	37	8.5%
장애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인간이다	132	30.3%
장애인과 죄와의 관계	2	0.5%
장애인을 위해 교회에서 해야 할 사명	25	5.7%
기타	26	6.0%
Total	436	100%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환경은 교인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좋은 의식을 심어주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목회자부터 교인들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을 위한 목회적 돌봄이 특정한 누군가만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깨닫는 인식의 변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3. 장애인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한국교회 재정적 문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어려운 점으로 종합점수를 구한 결과, 교회의 재정 문제가 581 점(51.0%)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다음은 교회시설과 공간의 부족이 235 점(20.6%), 지식과 기술부족이 101 점(8.9%) 순으로 높았다."[38]

[38] 김미숙,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연구: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quoted in 하은철, "한국교회의 장애인을 위한 목회적 돌봄 방안 연구" (M.A. thesis,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2013), 49.

김수진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39]에서 기독교한국침례회의 담임목회자 및 부사역자 200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했다.

(표 4) 장애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진행 시 어려움 및 문제점

구분	빈도(명)	비율(%)
교회 형편상 복지사업에 쓸 수 있는 재정이 없다.	88	44
교회 내 시설 및 공간이 부족하다	55	27.5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	28	14
교인들이 교회의 장애인복지서비스에 소극적이다	9	4.5
기타	20	10

(표 5)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 교회의 설문결과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하지 않는 이유	출석하는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34	23.6
	재정규모가 작아서	70	48.6
	장애인 관련 전문 인력이 없으므로	18	12.5
	기타	22	15.3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나	그렇다	139	96.5
	아니다	5	3.5
장애복지서비스의 계획여부	있다	90	62.5
	없다	54	37.5

[39] 김수진, "장애인복지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미간행 M.A. thesis,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5), 53-55.

이처럼 장애인복지에 대한 조사 결과들에 의하면, 장애인을 위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재정적인 문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을 소망하지만,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다.

4. 장애인을 위한 시설 문제

최석주는 *지역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 연구*[40]에서 천안시 쌍용동에 위치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했다.

(표 6)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내용	빈도(명)	백분율	누적율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14	7	7
경사로	7	3.5	10.5
점자 표지판	6	3	13.5
점자 블럭	1	0.5	14
휠체어용 리프트	1	0.5	14.5
기타	20	10	24.5
무응답	37	18.5	43
해당 없음	114	57	100
합계	200	100	

한국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다 보니 교회건축의 목적을 예배를 위한 공간의 '수용인원'에 집중하였다. 본래 교회는 교인들의 연령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차이에 상관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평등성을 갖는 공간이어야 한다.

[40] 최석주, "지역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 연구" (M.A. thesis,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8), 35.

다시 말해, 교회는 각 구성원들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건축 환경이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건축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 교계에서는 공공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서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이 국내에 소개되고 있고, 국내 학자들도 공공신학, 공적 신앙,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외치며 교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학은 당연히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사로운 신학'(private theology)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공'이란 말을 붙여서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 신학이 당연히 강조해야 할 공공성을 소홀히 여겨왔다는 반성의 소리이다.[41]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는 속한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실재와 현실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타자를 위한 존재'라면 그의 몸인 교회도 타자를 위한 존재여야 한다.[42] 이에 따라, 나는 보호 받아야 할 약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떠한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정동교회 안에 지체가 자유롭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음 3 장에 그 내용을 소개한다.

---

[41] 강영안 et al.,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346.
[42] 김영선, *참된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118.

Chapter Ⅲ

질적 연구 과정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장애인 성도가 경험하는 갈등과 불평등에 대한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다.

A.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자가 시무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제일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에 출석중인 장애인 성도 70 여 명 중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이들 10 명을 선정했다. 그들과 면담을 할 경우에는 목사와의 관계나 교인들에 대한 평판을 우려하여 정직한 대화를 진행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윤리성 확보를 위해 개인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내용의 윤리서약서를 작성했다. 연구를 위해 면담된 내용은 윤리서약서대로 연구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보안에 철저히 할 것임을 설명했다.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지만, 연구가 종료되면 파기할 것을 약속했으며, 연구 결과가 출판되거나 학술대회에서 토론될 때 연구참여자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 어떤 정보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충분히 설명했다. 만약 교육적인 목적으로 연구참여자의 연구참여에 대한 사진, 비디오, 녹음 등이 사용된다면 연구참여자의 신분은 비밀로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가명을 사용하기로 인터뷰 전에 약속했다.

또한 연구참여자는 본 연구를 위해 면담 참여시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어느 때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도록 설명했다.

면담장소는 연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교회 밖에서 진행했으며, 면담시간은 연구참여자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약속을 잡았다. 또한 이러한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윤리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 ‘기관 윤리 심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얻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면담기간은 한국시간을 기준하여 10/10/2018 부터 11/29/2018 까지이며, 10 명의 참여자의 시간을 배려하여 작게는 3 회, 많게는 5 회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인적사항을 아래의 〈표 1〉로 정리하였는데, 장애특성, 연령, 직분, 신앙경력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표 7) 연구참여자들의 인적사항

	장애특성	연령	성별	직분	신앙경력
연구참여자 A (3 회)	시각	61	남	권사	30 년
연구참여자 B (3 회)	시각	55	남	성도	7 년
연구참여자 C (3 회)	시각	54	여	집사	5 년
연구참여자 D (3 회)	지체(하지관절)	66	여	집사	10 년
연구참여자 E (3 회)	지체(상지관절)	44	남	성도	13 년
연구참여자 F (5 회)	지체(하지절단)	48	남	성도	20 년
연구참여자 G (5 회)	지체(상지절단)	59	여	집사	29 년
연구참여자 H (5 회)	신장	62	여	권사	25 년

연구참여자 I (5 회)	심장	52	남	집사	20 년
연구참여자 J (5 회)	심장	66	남	집사	8 년

B. 연구 방법

나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 심층 면담 방법을 사용했다. 심층면담은 질적 연구를 대표하는 연구방법이다. 참여자들의 세계를 기술하고 이해하는 데 심층면담 방법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면담은 연구참여자로부터 정보나 의견,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교환, 또는 목적을 가진 대화를 뜻한다. 참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행동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에 대한 심층적 정보와 이해를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43]

사이드만(Irving Seidman)은 심층면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번 정도의 면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첫 번째 면담은 생애사 집중하기다. 첫 번째 면담에서 연구자의 과업은 연구참여자에게 주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맥락 안에 놓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면담은 경험의 세부사항을 재구성하기이다. 두 번째 면담의 목표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가 현재 하고 있는 생생한 삶의 경험의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에 집중하는 것이다. 세 번째 면담은 의미에 대해 숙고해 보기이다.

이는 면담과 이 연구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단계이며, 이처럼 의미를 만드는 활동은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서 여러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현재의 상황으로

[43]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Ⅰ-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2), 291.

이끌었는지를 주목하게 한다.[44]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수행해 가기 위해서는 면담자는 면담의 상황이 연구자의 주장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생각을 듣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서 면담 기법은 '반구조화된 면담'[45]을 사용했다. 장애인 성도들에게 사용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정동제일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② 교회 홈페이지, 주보, 정기간행물, 안내 데스크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때 어떠십니까?

③ 예배를 드리는 환경가운데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없어서 느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④ 반대로 장애인을 위한 배려라고 하면서 오히려 어색하게 하는 일은 없었나요?

⑤ 내가 가진 장애와는 상관없이 교회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⑥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공동체 성원들과의 연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⑦ 성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성례의 형식과 분급의 과정 가운데 소외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⑧ 현재 성찬예배가 주일 아침 7:30에 1회만 드려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⑨ 성찬 가운데서 모든 성도가 환대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

[44] Ibid., 332-33.

[45] "반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자가 만든 면담 가이드에 의하여 면담을 진행하되 면담자가 범할 수 있는 면담상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배제한 면담형식이다. 그래서 면담자가 미리 준비한 일련의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질문을 한 다음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더 깊이 피면담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면담이라고 할 수 있다." Ibid., 326.

C. 연구절차

김영천에 의하면 현상학적 자료의 분석과정에는 다섯 단계가 있다:

1. 자료의 검토: 수집된 자료들을 읽고 그 안에 포함된 의미들을 발견한다.
2. 의미나 주제의 추출: 의미나 주제를 추출하여 그것을 범주화한다.
3. 의미나 주제 단위로 진술을 통합: 범주화된 의미나 주제 단위의 진술들을 따로 묶어 여러 개의 의미 단위를 구성한다.
4. 의미나 주제 단위로 묶인 자료에 대한 성찰: 의미나 주제 단위로 묶인 각각의 의미 단위에 대해 성찰하여 그것의 의미를 밝힌다.
5. 의미나 주제에 대한 통합적인 구조적 진술의 구성: 각각의 의미 단위에 대해 성찰하여 그 의미나 주제에 대한 개념화를 한다[46]

위의 분석방법을 기준으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콜라이지(Paul F. Colaizzi)의 분석 절차를 사용할 것이다. 콜라이지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 시 녹음했던 것들을 옮겨 적고 반복적으로 읽는다.
둘째, 면담 중 연구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들을 끌어낸다.
셋째, 명확하게 밝힌 의미 있는 주제들을 묶는다.
넷째, 조사된 현상을 철저하게 기술한다.
다섯째, 분석과정을 통해 나온 본질적인 내용과 포괄적인 구조가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유효성을 확인한다.[47]

특히 본 연구에 있어서 '현상학적 환원'(phenomenological reduction)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선입견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48] 이 개념에 대한 이해는 '에포케'(epoché)라는 '괄호치기'(brackrting), 두 단어를 통해서 분명해진다. 에포케는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 그 자체를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로써, 편애, 편견, 경향성을 배제시키고 사물과 사건, 그리고 사람들을

[46]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Ⅱ :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110.
[47] Ibid., 107.
[48] Ibid., 94.

의식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여 그것들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살피는 단계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리고 믿고 있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선개념, 선지식, 선이해 등이 우리의 의식에 미치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

괄호치기는 이러한 판단중지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을 괄호 안에 집어넣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괄호치기는 이러한 괄호 안에 우리의 이해, 믿음, 편견, 가정, 전제, 이론 등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장을 해제하고 '열림'(openness)을 다시 찾음으로써 세계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49]

연구를 하는 동안 나는 다음과 같은 에포케와 괄호치기를 실시했다.

① 장애인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하다.

② 교인들은 장애인들을 불편하게 여긴다.

③ 장애인들은 교회 안에서 발언권이 없다.

④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사이에는 좁히지 못할 거리가 있다.

⑤ 장애인은 직분을 받는 데 차별을 받고 있다.

⑥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혹은 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10 명의 장애인과 2 개월간 심층 면담을 진행하며, 장애인을 차별하는 교회 건축물(정동제일교회를 중심으로)과 성찬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 효과적인 질적 연구를 위해 김영천의 *질적연구방법론 Ⅰ,Ⅱ,Ⅲ,Ⅳ* 를 참고문헌으로 연구에 활용했으며, 연구의

---

[49] Ibid., 95.

신학적 분석 및 중요개념을 위해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의 *무너지지 쉬운 절대성*과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évinas)의 *시간과 타자, 윤리와 무한,*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환대에 대하여*와 강남순의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라는 책을 참고했다.

D.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를 위해 10 명의 장애인 성도와 3 회-5 회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A, 연구참여자 G, 연구참여자 H 는 녹음을 원하지 않았다. 녹음을 원하지 않는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부드럽게 그 이유에 대해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녹음을 허용한 7 명의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옮겨 적고 반복적으로 읽었다. 그 중 의미 있는 진술들을 끌어내어 명확하게 밝힌 의미 있는 주제들을 묶었다. 또한 주제와 관련하여 조사된 현상을 철저히 기술했으며, 분석과정을 통해 나온 본질적인 내용과 포괄적인 구조가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유효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콜라이지(Colaizzi) 분석 과정에 따라 분석하니, 32 개의 주제와 11 개의 주제군 3 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범주(D.1)는 '시스템 문제'로 3 개의 주제 군과 7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고, 두 번째 범주(D.2)는 '소외의 문제'로 5 개의 주제군과 13 개의 주제, 세 번째 범주(D.3)는 '차별의 문제'로 3 개의 주제군과 12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 자료의 분석을 아래의 표에서 요약했다.

(표 8) 자료 분석 결과: 범주, 주제군 및 주제

<table>
<tr><th>범주</th><th>주제군</th><th>주제</th></tr>
<tr><td rowspan="3">D.1. 시스템 문제</td><td>1. 점자시스템의 부재</td><td>1) 점자 블록이 있는 계단이 없어요.

2) 점자 간행물과 주보가 없어요.

3) 교회를 소개하는 점자 안내판이 없어요.</td></tr>
<tr><td>2. 휠체어 통행 시스템의 부재</td><td>1)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2) 통로가 좁아 휠체어를 이동하기 어려워요.</td></tr>
<tr><td>3. 휴식공간의 부재</td><td>1) 장애인이 어디 들어가서 있을 데가 없어요.

2) 장애인동호회가 모임을 갖거나,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아요.</td></tr>
<tr><td rowspan="4">D.2. 소외의 문제</td><td>1.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시간문제</td><td>1) 성찬을 참여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먼저 일어나야 해요.

2) 분급시 나 때문에 성찬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td></tr>
<tr><td>2. 좌석배려</td><td>1) 안내위원들은 내가 나가기 편하라고 문 쪽에 앉으라고 해요.

2) 예배당에서 지팡이 소리가 나면 안 된다고 문에 가까이 앉으래요.

3) 휠체어석이 없어서 통로에서 예배드려요.</td></tr>
<tr><td>3. 잘못된 환대</td><td>1) 안내위원들이 나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눈에 보여요.

2) 잘 왔다면서 악수를 청하는 그 의도가 뭔지 정말 궁금해요.</td></tr>
<tr><td>4. 임직에서의 소외</td><td>1) 29 년 예수 믿도록 집사예요.

2) 난 평생 성도로만 살아야 하나 봐요.</td></tr>
</table>

		3) 눈만 안 감았어도 장로 됐을 거예요.
	5. 프로그램의 부재	1) 성경공부 하고 싶어요. 2) 나도 노래를 꽤 잘 하는데, 성가대가 하고 싶어요. 3) 우리끼리 모여서 수다도 떨고, 강사님들 모셔놓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 좋겠어요.
D.3. 차별의 문제	1. 체념적 수용	1) 몇 명 때문에 경사로 놓기도 그렇고. 2)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3) 몇 명 때문에 그런 걸 바라면 안 되죠. 4) 이러다가 평생 성도로 살지도 모르겠어요. 5) 아직도 집사 못 되었어요.
	2. 분노	1) 이렇게 많은 빈 공간에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게 마음이 그렇네요. 2) 심장박동기 수술한 거 뻔히 알면서 꼭 그렇게 말을 해요. 3) 아무리 어려도 그러면 안 되죠.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4) 29 년 예수 믿도록 집사예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3. 수치심	1) 쪽팔리다. 2) 못 가겠더라, 못 가는 데야. 3) 남들 방해 주지 말고 집에 있자.

D.1. 시스템 문제

시각장애인인 연구참여자 A, B, C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연구참여자 D, F 그리고 신장의 장애를 갖고 있는 연구참여자 H 가 이에 대하여 진술했다:

〈연구참여자 A〉
저는… 30 년을 이 교회에 다녔어요. 눈 뜨고 다닌 세월이 20 년이고 어… 눈 감고 다닌 세월이 10 년이에요.… 어…(한숨) 받은 은혜가 크지요… 그런데 참 답답할 때도 있어요.… 내가 눈 뜨고 다닐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마 눈 감고 사는 게 쉽지 않아서… 더 교회 탓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 한쪽 눈은 젊어서 잃었어요.… 녹내장으로… 다른 쪽도 녹내장으로 잃었어요.… 많이 연습했어요… 답답할까 봐 점자도 배웠고… 노래도 배웠고… 동네도 계속 외웠고… 근데 교회에 오면 (시설 전체를 설명해 주는) 점자안내판이 없어서 답답해요.…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그래도 눈 감았어도 20 년을 다녔고,, 쉽게 쉽게 다녔는데… 아… 리모델링하고 나니까… 진짜 답답해요.… 주보도 점자로 안 나오고… 사실 몇 명 때문에 그런 걸 바라면 안 되긴 하죠.…

〈연구참여자 B〉
정말 다른 교회 많이 가 봤어요.… 병원에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이 교회 온 지 5 달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참 편하긴 해요.… 화장실도, 식당도, 뭐 하여튼… 다 점자안내판이 있으니까… 근데 지팡이로 땅을 두드려도 계단인 걸 모르는 공간들이 있어요.… 경사로라도 있어야 편한데… 이 비싼 서울 땅에 몇 명 때문에 계단보다 몇 배 돈 들어가는 경사로 놓기도 그렇고…

〈연구참여자 C〉
요즘 마포구에서는 점자간행물을 발행해요. 그런 얘기만 들어도 신이나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시각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점자간행물 있어야 해요. 전도용품으로 점자 전도책자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점자로 된 간행물이 워낙 없어서 장애인들 중에 점자를 배우고도 써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도책자를 점자로 나눠주면 내용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점자가 잘 찍혔는지 궁금해서라도 읽어볼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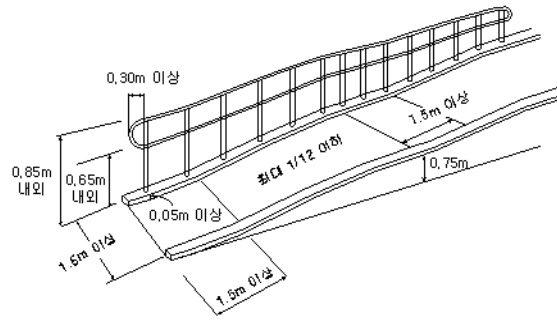
계단이나 난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음에도 없는 공간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생각해 보니, 각 공간들의 문 바로 옆에 그게 어떤 공간이며, 그 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점자판은 있지만, 교회 전체의 시설물들을 소개하는 점자안내판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또한 점자 전도책자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한 번도 그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 모든 공간들은 힘 있는 다수의 결정권을 가진 자들이 필요에 의해 설계되었고, 만들어졌다. 왜 한 번이라도 이 건물을 세우고, 고치면서 그들에게 묻지 않았을까?

〈연구참여자 F〉
난 다리가 이렇게 됐어도 젊은 편이예요.… 농구팀에도 가서 운동하고 뭐 그러니까.… 다리 다친 지 8년 됐는데, 교회는 아주 젊어서부터 다녔어요.… 열심히를 안 했지.… 근데 다리 다치니까 휠체어 끌고 다니던 교회는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는데.… 뭐 다 그래.… 그래도 우리끼리 하는 말 중에 서울에 있는 교회가 낫다… 그래.… 그 중에서도 여기는 공사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잘 해 놨어.…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벧엘예배당은 못가는 데야.… 그게 문화재라면서요?... 못 가봤어요…

〈연구참여자 D〉
목사님 그거 아세요? 화장실 출입문은 넓은데,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대변기가 있는 칸의 문이 좁은 거? 휠체어를 집어넣으려면 손이 바퀴에 눌릴까 봐 힘껏 밀어서 한 번에 들어가야 해요. 두세 번 휠을 돌리려면 손이 끼어버려요. 그 안의 공간도 너무 좁아요. 다른 화장실 가보셨어요? 큰 화장실은 그 안에서도 휠체어를 돌려서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 들어가면 뒤로 나와야 해요. 이런 건 좀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밖에 못 고치나. 어차피 고칠 거 좀만 더 크게 만들어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심층면담의 결과를 보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중요한 주제가 드러난다.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았는다는 것이다. 몇몇 점자안내판이 붙어 있긴 해도, 점자로 주보나 간행물이 발행되지 않거나,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가 마련되지 않은 공간들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입구는 커도 안의 공간이 작아 휠체어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림 1〉을 보면 국토해양부가 정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경사로의 설치 기준 - 손잡이, 추락방지턱

국토해양부가 정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을 보면 계단과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여건상 함께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사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했다. 이 외에도 직선형 경사로의 여건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굴절형 경사로를 설치해야 함을 이야기한다.[50]

그나마 경사로는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점자 간행물이나 주보는 시각 장애인 성도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의 인력과 자본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장이 자신의 기능을 하지 못해 매일 투석을 하며, 이식을 기다리는 연구참여자 H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 〈연구참여자 H〉
> 평소에도 자주 코피가 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리는 말로 너 백혈병 아냐? 코를 그렇게 심하게 파는 거 아니다, 뭐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퉁퉁 부었어요.… 눈두덩이가 특히 심하게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도 못 가고 자주 쉬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딸꾹질도 자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 볼 때 아프고… 급성신부전이 와서 신장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루에 두 번씩 투석을 하느라 누워있는 게 거의 생활이 됐어요.… 원래 자주 눕는

50 Safenet,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 *안전전문포털사이트 SAFENET*, May 3, 2013 http://www.safetynetwork.co.kr/home/bbs/board.php?bo_table=data12&wr_id=893&sca=&sfl=&stx=&sst=&sod=&spt=0&page=0&ca_name_s=158-667-675.

> 사람이 아닌데… 신장이 그래서 그런지 계속 눕고만 싶어요.… 아니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눕고 싶어서 고생고생을 해요.… 눈도 못 뜨겠는 날도 있어요.… 정말 어디 가다가도 이렇게 피로감이 몰려오면… 다 제쳐두고 길바닥에라도 눕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오는 날도 있어요.… 성경 가방 들고 집에서는 나왔는데… 눈이 무겁고 갑자기 피곤하고… 그럼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싫어하실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 가면 쉴 데도 없어… 눕지도 못해… 예배시간에는 꿈쩍도 못해… 남들 방해주지 말고… 오늘은 집에 있자… 이 피로감은 누구도 몰라요.…

한국의 노동자 인권은 많이 향상되었다. 2018 년 11 월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는 모든 건설현장에 남성,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휴식공간, 탈의실, 샤워장이 설치되었다. 전주시는 2018 년 2 월 20 일 경력단절 여성 등 여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여성친화기업에 여성근로자전용휴게실의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제는 웬만한 건물에 들어가도 수유와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배려된 공간이 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을 가진 교회는 얼마 안 된다. 자모실의 한켠을 커튼으로 막거나, 문을 달아 아주 작은 공간을 제공할 뿐이다. 장애인 성도를 위한 휴게실을 가진 교회가 한국에 얼마나 될까?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비단 휴식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다. 장애인이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 〈연구참여자 F〉
> 이렇게 방도 많고, 공간도 많은데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은 하나도 없어요. 모여서 얘기를 하거나, 정보를 나누거나, 어떤 프로그램은 바라지도 않아요.… 무슨 강사를 모셔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빈 공간에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게 마음이 그렇네요..

교회의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한 공간들은 교육부서, 찬양대, 사회봉사, 기타 봉사자들이 차지한다. 하지만 어디에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속회 예배와 같은 소그룹 활동에서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인들이 평일에는 속회예배를 모이는 것이 힘들어졌다. 이제는 주일 낮 예배의 전후를 이용하여 속회예배를 드린다. 교육관에서는 각 부서별 소그룹 모임이 진행된다.

누구 하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장애인 성도들을 하드웨어적 시스템으로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 스피박은 "서발턴"[51]의 개념을 권력구조와 연결한다. 권력 구조의 중심부에 들어오지 못하고 배제되는 주변부의 사람들을 '서발턴'이라 한다.[52]

우리는 장애인 성도들을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수가 적다는 이유로 주변부로 내몰았다. 이들에게는 물리적인 공간도,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교회의 소식이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어떠한 간행물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구조적/제도적으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 특히 이 일이 공적인 일임이 분명함에도 공적 차원의 어떠한 배려나 지원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다.

휴게실이 주어지지 않아 교회출석을 고민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가고 싶은 공간이 있어도 마음껏 드나들지 못하는 친구에게, 자신만의 소리를 자신의 방법으로 듣고자 애쓰는 가족에게 손 내밀지 못하면서 서로를 향해 우리교회 식구라고 소개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

[51] 사전적으로 'subaltern'은 영국 군대의 하급 장교를 말한다. 그람시(Antonio Gramsci)는 자신의 옥중수고에서 '패권을 장악하지 목한 집단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말로 'subaltern'을 사용했다. '그람시는 특히 이탈리아 남부의 조직되지 않은 시골 농민집단을 지칭하기 위해 서발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들은 하나의 집단이라는 사회적·정치적 의식이 없었고, 그래서 국가의 지배적인 사상·문화·통솔력에 영향받기 쉬웠다.' 1980 년대 인도의 서발턴 연구 집단은 그람시로부터 이 개념을 빌려와, '남아시아 사회에서의 종속-그것이 계급, 카스트, 연령, 젠더, 지위 또는 그 밖의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든-의 일반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한 이름'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피박은 '서발턴(subaltern)'을 '영향력 있는 정치 담론들로 미리 정의되지 않은 다양한 종속적 처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스피박에게 이 개념은 특정 집단을 지칭하도록 고정되어 있지 않다. 스피박에 따르면 이 개념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이론적 엄밀함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 분석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것을 지칭할 수 있다는 유용성을 갖는다. 김애령, "다른 목소리 듣기-말하는 주체와 들리지 않는 이방성," *한국여성철학* vol. 17 (2012): 36-7.

[52] 정윤길, "스피박의 서발턴 이론과 소통의 문제," *인문과학연구,* vol. 37 (2011): 222.

D.2. 소외의 문제

연구참여자 D 는 하지관절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자신은 교회의 공예배에 모두 참석하려고 노력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한 달 한 번 진행하는 성찬에 대한 불편함이었다. 또한 장애의 유형에 따라 분급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D〉
성찬은 왜 아침 7 시에만 하는 겁니까? 1 부 예배를 드리려면… 저는 새벽 4 시부터는 준비해야 해요.… 몸이 성한 사람들이야… 후딱후딱 하죠.… 우리는 마음만 급해요.… 게다가 누가 안 도와주면 옷 입는 것부터…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 성찬을 좀… 하고 싶은데… 꼭 1 부 예배에만 해요.… 사실 그럴 때는… 아… 가지 말아야 하나… 오지 말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슬픈 건 이런 말을 마음에만 두었지 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연구참여자 A〉
분급받으러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권산데… 어떻게 안 보인다고 편하게 3 부예배 드려요.… 그래도 성찬을 그 시간에 하는 건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나오는 거야 뭐 택시타면 돼요.… 그런데 분급받으러 나가려면… 지팡이 들고… 똑똑똑똑 거리면서 앞까지 나가요.… 아니면 누가 붙잡아주면 불편해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쪽팔리는 건 지금부터예요.… 뭐가 어디 있는지… 이게 빵인지… 포도주인지… 뭐가 보여야 하죠.… 장로님인지 누군지 그거 들고 말로만 예수님의 살이고 피라고 하는데… 그거 더듬다가 한 번은 엎을 뻔 했어요.… 그러면 눈치껏 누가 손에 올려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건 좀 그래요.… 차라리 안 하고 싶어요.… 한 번은 안 했더니… 장로님이 제가 앉은 자리까지 오시긴 했는데… 매번 그렇게 해달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연구참여자 A,B,C 는 자신들이 예배당에서 지팡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안내위원들이 붙잡고 자리를 앉혀주는데, 주로 문과 제일 가까운 쪽에 앉혀주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연구참여자 F 는 더 강력하게 좌석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연구참여자 F〉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목사님, 유럽에 가면 모든 시내버스에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리프트가 달렸고, 좌석 중에도 휠체어가 들어가도록 전용 자리가 있어요. 안전을 위해 뒤를 보고 앉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다니는 2층 버스들은 다 휠체어 공간 있어요. 법원에서 한 지체장애인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소송한 거에 손들어줬어요. 뭐 원래는 공간이 좁았는데, 더 넓히라고 했대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통로에서 예배드려요. 복지관 같은 데 가면 휠체어 보관함이랑 전용 주차장도 있어요. 교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통로에 자리 잡으면 다른 사람은 아예 못 다니는 교회도 많아요. 의자랑 의자 사이가 얼마나 좁은지… 그러면 정말 난감해요.

안내위원들의 잘못된 환대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알 수도 있었다. 안내위원이 아닌데도 안내를 하는 몇몇 남자 권사나 장로도 있었는데, 장애인 성도들은 이들의 말이 상처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구참여자 I〉
아니 그 OOO는 저만 보면 아이언맨이라고 해요. 교회에 오면 꼭 그 문 앞에 서서 인사를 하는데, 심장박동기 수술한 거 뻔히 알면서 꼭 그렇게 말을 해요.

〈연구참여자 J〉
저는 그 OOO 집사님이 심장박동기 시술한 것 알거든요. 나랑 똑같은 수술을 했고, 아마 거기도 나처럼 시술하고도 심장 기능이 썩 좋지 않아서 등급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교회 앞에서 만나서 같이 오는데, 안내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이언맨 왔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던데, OOO 집사가 아무리 어려도 그러면 안 되죠.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G는 프레스에 눌려 한쪽 손이 절단된 아픔이 있다. 나머지 한 쪽도 손가락이 3개이다. 의수를 끼고, 손은 거의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들어가니 구태여 악수를 청하는 안내위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잘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자 당황하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뿐 아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성도들이 들어올 때면 이쪽으로 가라고 했다가, 저쪽으로 가라고 했다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강남순은 환대의 의미가 왜곡될 때가 있다고 강조한다.[53] 바로 위계적 권력관계가 그 중심적 작동기제로 적용될 때이다. 섬김과 진정한 환대를 위해 선발된 이들의 잘못된 환대는 오히려 장애인 성도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었다. 이는 오히려 폭력이다.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들은 매우 주관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소외를 느끼는 장애인 성도들의 감정, 시스템의 불편함도 어찌 보면 그들만이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야기할 임직의 문제는 교회가 이들을 얼마나 소외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일이며, 이들을 향한 교회의 시선을 정확히 확인하게 된다:

> 〈연구참여자 G〉
> 목사님 나는 이 교회에 29 년 다녔어요. 손 다친 지는 20 년 다 된 것 같아요. 손 다치기 전에 집사라도 됐으니 다행이죠. 손 다치고도 십일조 열심히 했어요.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헌금도 꼬박꼬박했어요. 29 년 교회 열심히 다니고도 권사가 안 돼요. 29 년 예수 믿도록 집사예요. 권사에 목숨 건다고 이상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
> 〈연구참여자 F〉
> 나는 속회에 편성도 안 돼요. 벌써 여기 온 지 20 년인데, 아직도 집사도 못 받았어요. 주일에 안 빠지고 오려고 정말 노력해요. 적지만 헌금도 매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집사라고 불러요. 하도 오래 봤으니까… 근데 아직도 집사 못 됐어요.
>
> 〈연구참여자 I〉
> 저는 이번에 아마 권사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공천위원회에서 누가 그랬나 봐요. 병원에 밥 먹듯이 입원해야 하는데… 덕이 되어야 권사도 되고 그러는 거라고… 몰라요.… 정말인지는… 근데 누가 그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
> 〈연구참여자 E〉
> 아내는 벌써 집사가 됐어요. 다른 교회 다녀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아내가 집사 된 지는 거의 7 년 됐나봐요. 저는 청년 때부터 이 교회에 다녀서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손을 다쳤는데… 여전히 청년인 줄 아는 건지… 다른 친구들은 벌써

[53]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 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기독교사상* vol. 668 (August 2014): 238.

집사 다 됐어요.… 그 중에는 이번에 권사 된다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말이니까… 이러다가 평생 성도로 살지도 모르겠어요.

〈연구참여자 A〉
눈만 안 감았어도 장로 됐을 거예요. 저랑 같이 권사 된 사람들 지난번부터 공천받더라고요.…

면담 이후 알아본 결과 연구참여자 A, G, I 는 권사가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권사직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직분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또 다른 차별과 소외의 요소를 발견하게 되었다. 직분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이 비장애인에게 있으니, 연구참여자 A 의 불만은 정당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래도록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며 느낀 불평등과 소외의 감정이 이미 깊게 침착되어서 모든 상황에서 자신은 차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식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장애인 성도들은 자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에서도 소외를 경험했다. 시각장애인 성도들은 성경공부를 하고 싶어도 점자로 된 자료가 없어서 할 수가 없었다. 제자훈련을 진행하길 원하는 연구참여자 H 는 체력이 따라주질 않아 숙제가 많은 프로그램에는 들어가질 못한다고 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연구참여자 F 와 시각장애인 성도인 연구참여자 C 는 성가대를 하고 싶다고 했다.

D.3. 차별의 문제

심층면담이 계속되면서 장애인 성도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때로는 울기도 했고, 분개하기도 했으며, 고개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다리를 심하게 떨거나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행동도 나타났고, 코나 눈, 입 주변을 만지기까지 했다. 장애인 성도들이

가지는 감정들을 정리하면 차별에서부터 기인한 체념적 수용, 분노, 수치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체념적 수용이다. 표정이나 안색, 또는 고개를 숙이거나, 자세를 바꿔 앉는 등의 행동으로 이러한 감정이 표출되었다:

〈연구참여자 B〉
경사로라도 있어야 편한데… 이 비싼 서울 땅에 몇 명 때문에 계단보다 몇 배 돈 들어가는 경사로 놓기도 그렇고…

〈연구참여자 F〉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목사님, 유럽에 가면 모든 시내버스에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리프트가 달렸고, 좌석 중에도 휠체어가 들어가도록 전용 자리가 있어요. 안전을 위해 뒤를 보고 앉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다니는 2층 버스들은 다 휠체어 공간 있어요.… 교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연구참여자 A〉
근데 교회에 오면 점자안내판이 없어서 답답해요.…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그래도 눈 감았어도 20년을 다녔고, 쉽게 쉽게 다녔는데… 아… 리모델링 하고 나니까… 진짜 답답해요.… 주보도 점자로 안 나오고… 사실 몇 명 때문에 그런 걸 바라면 안 되긴 하죠.…

〈연구참여자 E〉
아내는 벌써 집사가 됐어요.… 이러다가 평생 성도로 살지도 모르겠어요.

〈연구참여자 F〉
나는 속회에 편성도 안 돼요. 벌써 여기 온 지 20년인데, 아직도 집사도 못 받았어요. 주일에 안 빠지고 오려고 정말 노력해요. 적지만 헌금도 매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집사라고 불러요. 하도 오래 봤으니까… 근데 아직도 집사 못 됐어요.

장애인 성도들은 시스템으로 인한 불편함에서도 "이 비싼 서울 땅에 몇 명 때문에 계단보다 몇 배 돈 들어가는 경사로 놓기도 그렇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사실 몇 명 때문에 그런걸 바라면 안 되긴 하죠"라며 현실을 수용해 버렸고, 임직에서 제외되는 상황도 "이러다가 평생 성도로 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집사 못 됐어요"라며 체념하고 받아들였다. 그 다음 대부분의 장애인 성도가 차별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은 분노였다:

〈연구참여자 F〉
이렇게 방도 많고, 공간도 많은데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은 하나도 없어요. 모여서 얘기를 하거나, 정보를 나누거나, 어떤 프로그램은 바라지도 않아요.… 무슨 강사를 모셔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빈 공간에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게 마음이 그렇네요.

〈연구참여자 I〉
아니 그 OOO는 저만 보면 아이언맨이라고 해요. 교회에 오면 꼭 그 문 앞에 서서 인사를 하는데, 심장박동기 수술한 거 뻔히 알면서 꼭 그렇게 말을 해요.
〈연구참여자 J〉
저는 그 OOO 집사님이 심장박동기 시술한 것 알거든요.… 근데 한 번은 교회 앞에서 만나서 같이 오는데, 안내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이언맨 왔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던데, OOO 집사가 아무리 어려도 그러면 안 되죠.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장애인 성도들이 느끼는 분노는 다양했다.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이 배려되지 않는 차별에 대한 분노, 자신의 질병이 놀림거리가 되는 것에 대한 분노, 임직에서 차별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대부분이었으며, 차별에 대하여 분노하는 상황에서는 말이 빨라진다거나, 말을 더듬었다. 또한 몸을 떨며 울기도 했고, 그러다가 어이가 없다는 듯 웃기도 했다. 안색이 붉어지거나 오히려 하얗게 변하는 성도도 있었다. 특히 분노는 참여회차가 거듭될수록 더 뚜렷하게 표출되었으며, 여성 장애인 성도보다는 남성 장애인 성도가 더 잘 표현했다. 또한 차별에 따른 수치심을 느끼는 성도들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A〉
분급받으러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분급받으러 나가려면… 지팡이 들고… 똑똑똑똑 거리면서 앞까지 나가요.… 아니면 누가 붙잡아주면 불편해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쪽팔리는 건 지금부터예요.… 뭐가 어디 있는지… 이게 빵인지… 포도주인지… 뭐가 보여야 하죠.… 장로님인지 누군지 그거 들고 말로만 예수님의 살이고 피라고 하는데… 그거 더듬다가 한 번은 엎을 뻔 했어요.… 그러면 눈치껏 누가 손에 올려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건 좀 그래요.… 차라리 안 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F〉
난 다리가 이렇게 됐어도 젊은 편이예요.… 농구팀에도 가서 운동하고 뭐 그러니까…

다리 다친 지 8 년 됐는데, 교회는 아주 젊어서부터 다녔어요.… 열심히를 안 했지… 근데 다리 다치니까 휠체어 끌고 다니던 교회는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는데… 뭐 다 그래… 그래도 우리끼리 하는 말 중에 서울에 있는 교회가 낫다… 그래.… 그 중에서도 여기는 공사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잘 해 놨어.…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벧엘예배당은 못 가는 데야.… 그게 문화재라면서요?... 못 가봤어요.…

〈연구참여자 H〉
평소에도 자주 코피가 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리는 말로 너 백혈병 아냐? 코를 그렇게 심하게 파는거 아니다.. 뭐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남들 방해주지 말고… 오늘은 집에 있자… 이 피로감은 누구도 몰라요…

수치심을 느끼는 장애인 성도들은 “쪽팔리다”, “못 가겠더라”, “못 가는 데야”, “남들 방해주지 말고 집에 있자”라는 말로 차별에 대한 수치심을 표현했다.

목사의 질문에 성도들의 솔직한 답변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심층면담이 진행될수록 더 솔직하게 자신들의 불편함을 이야기했다. 아마 내가 부목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또한 면담의 장소를 교회 사무실이나 교회의 부속건물이 아닌, 교회 밖에 위치한 카페로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나는 이 연구분석자료를 통하여 장애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잘 드러났다고 본다. 이 질적 연구의 결과는 정동제일교회가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과 인식의 문제로 장애인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고, 소외시키고, 차별했는지를 보여준다. 이제는 이들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환대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원 모두가 가져야 할 시각을 다음 장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모두가 장애와 비장애인, 강자와 약자,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 등의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공동체가 아닌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진 ‘코즈모폴리터니즘’ 이론이다. 제 4 장에서는 이러한 코즈모폴리턴 시각이 무엇인지, 그 시각으로 환대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 비장애인 중심의 시스템과 구조를 탈피하고, 자연스럽게 이들을 소외시키는

프로그램과 요소들을 변혁하여 함께 상생하는 교회,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보자.

Chapter Ⅳ.

코즈모폴리턴 환대

학자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한 ‘코즈모폴리턴’ 개념을 세 가지 영어로 번역하여 쓰고 있다. 첫째, 세계시민(citizen of the world), 둘째, 코스모스의 시민(citizen of the cosmos), 셋째, 우주의 시민(citizen of the universe)이다. 강남순은 이 중 경계를 초월하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코스모스의 시민’이라는 말을 가장 적절하게 여긴다. 즉, ‘코스모스’는 ‘세계’나 ‘우주’보다 더 확장된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54]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정신은 개인의 소속성을 국가보다 더 커다란 공동체로서의 ‘코스모스’로 확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이 우주에 속한 ‘동료 인간’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존재론적-가족관계’의 인식론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 이러한 인식론은 사회정치적으로 구분된 인종, 성별, 시민권, 국적, 종교 등의 무수한 조건들이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에 강남순은 이 코즈모폴리터니즘 정신을 모든 인간에게 정의나 공평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시킨다.[55]

앞에서도 언급된 바 한국교회에서는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당연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진리에 대해 소홀했다는 반증이다. 교회야말로 사사로움과 세상적인 것과는 분명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세상이 공적인 책임과 문제의 부재를 말할 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성서에서도 교회공동체의 태동에서부터 교회공동체가 이와 같은 보편성과 공공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

[54]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81.
[55] Ibid., 82.

예수께서는 배제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보편적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다. ‘아흔 아홉’이라는 숫자가 다수임에 틀림없지만, 지금 이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곤경에 처한 저 한 영혼마저 끝까지 찾아가서 함께 품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그들을 부르러 오셨지만, 인간을 죄인 삼고 정죄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신랄하게 비판하셨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신 인간들을 의인/죄인 양분하여 차별하던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향해 분노하시고 애통해하셨다. 어둠은 빛으로만 이길 수 있고 그늘은 햇빛으로 지울 수 있다.[56]

성서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소외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에덴으로부터의 추방, 인간과 자연과의 대립, 가인과 아벨의 갈등과 증오, 언어의 불일치가 보여 주는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 우상을 숭배하는 왕과 하나님께 백성들을 인도하려는 선지자들의 상황 가운데서 말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죄를 범했다는 바울의 고백에서도 소외는 존재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외는 다분히 성서적이며, 우리 인간들이 교회 안에서 저지르는 범죄로 이해[57]된다.

또한 소외는 경제적, 정치적 무력함의 감정이다. 제도화 된 권력의 불가항력이 소외된 자들에게 무자비하게 달려들지만, 보통은 그것을 정지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그 방향이나 속도를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속수무책이라고 느끼는 상황이 전개된 것을 그저 구경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이 소외이다.[58]

---

[56] 백소영, *기독교사상* vol. 673 (January 2015): 41.

[57]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Ⅱ*, 45.

[58] John Stott,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107.

A. 환대와 소외 – 편안함의 해체

질적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교회는 장애인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소외의 개념은 결코 근현대나 우리 시대의 전유물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고대학자들이 늘 염두에 두고 찾고자 했던 노력에서 소외개념에 관한 근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에리히 프롬(Erich Pinchas Fromm)은 소외 개념을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간의 우상숭배에서 찾고 있으며, 플로티누스(Plotinus)의 방사 이론이나 유태적 기독교 전통에도 소외 개념의 근원을 찾는 시도가 보인다.[59]

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자연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만물은 창조주의 손을 떠날 때에는 선한 것이었으나 인간의 손에 의해서 타락하게 된다.”[60] 루소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문명이 인간을 부패시키고, 자연으로부터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와 인류 간의 모순을 격화시키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노예제도에 의한 인간의 지배, 도시에 만연한 갖가지 악덕, 그리고 인위적인 욕구와 욕망의 증대는 바로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문명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61]

틸리히(Paul Tillich)는 존재의 실존, 즉 인간의 실존은 소외의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존재가 본질과 실존의 분리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성민은 그의 논문 *틸리히 신학에 있어서의 소외 문제와 그 해결*에서 틸리히의 소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틸리히는 본질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한다. 하나는 경험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하나는 경험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경험적인 방법으로 본질을 해석하면 본질은 사물의 속성이거나

[59] 정문길, *소외론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78), 17.
[60] Ibid.
[61] Ibid., 10-16.

사물이 참여해야 하는 하나의 보편성(a universal)이고, 가치 평가적인 방법으로 본질을 해석하면 본질은 타락되기 이전의 본래적이고 부패하지 않은 만물의 속성이다. … 소외는 존재가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다른 존재들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존재의 실존적인 곤경의 상태를 아주 적절하게 보여준다.[62]

정성민은 틸리히의 조직신학을 다음과 같이 직접 인용하여 틸리히의 소외 개념을 소개하면서 존재의 실존적 곤경을 묘사하기 위하여 소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성서적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소외는 성서적인 용어가 아니지만 인간의 곤경에 대한 성서적인 묘사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소외는 에덴동산으로부터의 추방에 대한 상징들 속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적대감 속에서, 형제와 형제 간의 견딜 수 없는 증오감 속에서 언어의 혼잡으로 인한 나라와 나라 간의 소외 속에서, 그리고 우상을 향해 치닫는 왕들과 그 백성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지속적인 저항들 속에서 암시된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고발하는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적대하는 인간(man against himself)에 대한 바울의 고전적인 묘사를 통해서, 그리고 왜곡된 욕망들로 가득 찬 인간들에 대한 인간의 혐오감에 대한 바울의 통찰력을 통해서도 소외는 암시된다.[63]

틸리히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외라는 단어는 죄에 대한 재해석이다. 틸리히는 죄라는 단어가 종교적으로 재평가가 된 이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64] 그러므로 “소외라는 용어는 이러한 죄에 대한 종교적인 재평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다. 이러한 종교적인 재평가를 통해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존재 자신으로부터의 분리인 소외로 이해될 수 있다.”[65] 틸리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62] 정성민, “틸리히 신학에 있어서의 소외 문제와 그 해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4(1)*, 2004, 243.

[63]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I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45, quoted in 정성민, “틸리히 신학에 있어서의 소외 문제와 그 해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34, no. 1 (2004): 244.

[64] Ibid., 245.

[65] Ibid.

> 만약 우리가 죄들을 언급하면서 죄로 여겨지는 특별한 행위들을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은 죄의 표현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죄는 인간의 행위를 죄로 정죄하는 율법에서의 불순종이 아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을 죄라 부르는 것이다.[66]

소외의 반대개념은 분리된 것들의 재결합이기 때문에 소외는 재결합을 통해 정복된다.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 분리된 것들의 재결합을 위한 저항으로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교회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즉 교회는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개개인 자신의 불편함과 희생은 불가피하다. 데리다(Jacques Derrida)는 "환대란 편안함(at home)의 해체다. 해체는 타자들, 자신이 아닌 타자들, 그 타자들의 타자들, 그 타자들의 타자들이라는 경계 너머에 있는 이들에 대한 환대다."[67] 데리다의 환대의 정의는 불편하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환대라는 것이다. 늘 편하게만 지내고 있던 자신의 집에, 누군가 함께 거주하게 될 때의 불편함을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편함과 소외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B. 얼굴의 환영

코즈모폴리턴 환대에서는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가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이 타자를 인식하는 중요한 지점 중 하나가 '얼굴'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히

---

[66] Ibid.

[67] Jacques Derrida, "Hostipitality," in *Acts of Religion*, 364, quoted in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97.

말하면 '표정'이다. 강남순은 주인이 손님을 대하는 예를 들어 환대를 할 때에 얼굴에 나타난 표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환대를 베푸는 '주인'이 '미소' 없이 '손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장면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의 이름, 성별, 국적, 인종, 성적 성향 등 다양한 사회적 표지들이나 범주들 '이전에' 또한 그 표지들 '너머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타자 인식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68]

우리가 장애인을 대할 때에 그들의 얼굴 혹은 신체를 바라보며 어떠한 표정을 가지고 환대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던지는 '당신은 누구십니까?'라는 인사와 물음이 호기심에 찬 환대와 환영의 물음인지, 의심에 찬 심문과 적대의 물음인지를 인지해야 한다. 강남순은 이러한 환대와 적대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물음을 "문지방 물음(threshold question)"[69]이라고 정의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새가족이든 장애인이든 어떠한 물음과 인사를 건네기 이전에 상대방은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얼굴이 담고 있는 '표정', '시선'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을 환대하는지, 반기지 않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질적 연구 중에 장애인 성도 두 명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잘 왔다면서 악수를 청하는 그 의도가 뭔지 정말 궁금해요."
> "안내위원들이 나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안내위원들이 장애인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들에게 그대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우리가 그들을 올바르게 환대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

[68] Ibid., 187.
[69] Ibid.

장애인들은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소외감과 차별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타자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작동되는 '코즈모폴리턴 시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타자를 바라볼 때에, '코즈모폴리턴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 이 '코즈모폴리턴 시선'은 "개별자로서의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 얼굴에게 가장 근원적인 가치와 권리를 인정하는 시선이다."[70]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얼굴은 소유가 되는 것에 저항한다, 그리고 그 얼굴은 내게 말을 건네며 그럼으로써 나를 관계로 초대한다"[71]라고 말한다. 강남순은 데리다의 글을 인용하여 "방문/찾아옴에의 환대"를 다음과 같이 고찰한다:

> 데리다(Jacques Derrida)에 의하면, 환대는 '무조건적 환대'와 '조건적 환대'라는 두 가지 정언명령들 간의 지속적인 '협상'에 의하여 형성된다. '무조건적' 정언명령은 '손님'에 대하여 어떠한 물음을 묻기 전에, 그들의 이름이나 정체성을 알기도 전에 무조건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환대이다. 이러한 무조건적 환대란 손님으로 '찾아오는 이'(arrivant)의 신분증명서나 그들의 법적 상태 또는 정체성과 상관없이 '얼굴'로만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 손님'(absolute arrivant)이란 어떠한 이름이나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이다.[72]

코즈모폴리턴 담론은 모든 개별인이 사회정치적 ·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다 함께 이 우주에 소속된 시민이라는 점을 우리의 환대, 연대, 정의 그리고 이웃 사랑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이러한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담고 있는 한 개별인의 '얼굴'로 고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겠다.

---

[70]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89.

[71] Emmanuel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202, quoted in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88-89.

[72] Jacques Derrida, *Aporias* , trans. Thosmas Dutoi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34, quoted in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 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246.

C. 예수적 환대와 코즈모폴리턴 시선

강남순은 자신을 '기독인'으로 규정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거로서 예수를 이야기한다:

>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기독인'으로 규정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이다. 그러므로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중심에 있는 예수가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실천하라고 하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것은 기독교를 교리적 경계 안에 갇힌 종교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서 살아 있는 종교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데 참으로 중요하다.[73]

인간은 모두가 어떤 외형적 조건과는 무관하게 인간으로서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받고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권리는 우리가 정의라고 부르는 모든 다른 사물과 같이 불가시적 인격에서의 인간과 관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권리는 절대로 타인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존경 받아야 할 인격적 권리 아래서 보호되어야 한다.[74] 이제 우리는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실현 불가능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도전과 저항이 있어야 한다. 강남순은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코즈모폴리터니즘 담론과 예수의 가르침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불가능성의 가치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권력 구조가 얽히고설킨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권력에의 욕구를 지닌 인간 조건들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실천하기란 불가능하다
> 예수는 나를 사랑하듯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며, 삶의 현장에서의 배고픔, 목마름, 헐벗음, 이방인 됨, 병듦, 감옥에 갇힘 등과 같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어떠한 경계도 긋지 말고 환대하고 돌보라고 하며, 또한 타자를 무한히 용서하라고 한다. 이는 예수의 '불가능성에 대한 열정'이다. 이처럼 타자에 대한

---

[73]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44.

[74] Emil Brunner, *Gerechtigkeit 정의와 사회 질서*, 97.

> 무조건적인 책임과 환대를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는 '불가능성에의 열정'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75]

기독교 코즈모폴리터니즘은 '예수적 시선'을 따르기 위한 철학적 담론이자 사회정치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76] '예수를 따른다' 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라는 제도화된 종교가 지닌 교회와 전통을 인식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는 외면적인 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지녀야 한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시선을 배우는 것'이다. 예수와 조우한 이들의 변화는 예수가 행한 교리 강론이나 훌륭한 설교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예수가 보여준 깊은 '시선'으로부터 그들은 변화의 태동을 시작했다. [77] 하지만 시선으로만 변화와 구원을 이끌 수는 없다. 예수는 변화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있었고, 몸소 실천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강남순은 예수와 삭개오의 만남을 '코즈모폴리턴적 환대의 시선'을 잘 보여주는 한 예로 그의 저서에서 소개한다. 예수가 삭개오를 대했던 모습을 '절대적 환대' 즉 '방문의 환대'의 예를 잘 보여준다고 말한다[78]:

> 삭개오는 먼발치에서라도 예수를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는 이미 육체적 조건으로 인해 무수한 차별을 경험한 사회적 소수자였다. 당시 그의 장애는 '신의 저주'로 간주되었고, 그로 인해 삭개오는 무수한 차별과 천대와 수모를 견뎌내야 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를 평등한 '동료 인간'으로 대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주변에 진정한 친구나 동료가 있었을 리 만무하고, 따라서 그는 세리로서의 권력을 최대한 이용해 자신의 삶을 보호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존재'(non-being)와 같은 삭개오를 '존재'의 영역으로 전이시킨다. 그리고 이 기적과 같은 전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지점은, 예수가 삭개오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이다. 예수가 삭개오의 얼굴을, 곧 삭개오의 존재를 '바라봄'으로써 그의

---

[75]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49.
[76] Ibid., 131-32.
[77] Ibid., 160.
[78] Ibid., 189-90.

'비존재로서의 삶'을 '존재의 삶'으로 긍정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예수는 삭개오에게 '회개하라'든지 또는 '죄인'이라는 종교적 정죄를 전혀 하지 않는다. 다만 삭개오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은 당신의 집에 머물러야만 합니다'(I must stay at your house, 눅 19:5)라는 선언을 할 뿐이다. '바라봄'과 '자기 초대'라는 일견 단순해 보이는 예수의 두 행위를 통해서 삭개오는 돌연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한다.[79]

그렇다. 아마도 삭개오는 평생 동안 자신을 고귀한 한 인간으로 바라봐주는 '긍정과 연민의 시선'을 받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돌연히 예수로부터 따스한 '연민의 시선', 진정으로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시선을 받게 된다. "나아가 예수는 자신을 스스로 삭개오의 삶의 공간에 '초대'함으로써 삭개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삭개오의 존재에 대한 단호한 '긍정'을 공적으로 선언한다."[80]

이러한 예수의 절대적 환대를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삭개오의 삶의 변화, 즉 '삶의 긍정'의 경험이다. 예수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81] 이러한 예수의 선언은 삭개오의 종교적·교리적 고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변혁 주체로서의 삶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가 이야기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눅 10:3-35)를 통해서도 그의 코즈모폴리턴 시선을 알 수 있다. 당시 사회 배경에서 정통 종교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은 이방 종교인이었다. 그런 그가 사회, 문화, 종교,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는 환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예수는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영생'과 구원'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

[79] Ibid., 190.
[80] Ibid., 191.
[81] 누가복음 19:9 (개역개정).

이야기는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이며, '예수를 따르는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한다.[82]

교회 안에는 신체나 지체의 장애를 가진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 모두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함께-살아감'을 위해서는 '예수의 시선'을 회복해야 한다. 이 시선의 회복은 곧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룩함을 삶의 방식으로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어디에서도 거룩함을 지켜낼 수 없다. 물론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이들을 위한 정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거룩함의 일부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83]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84]고 말한다. 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선한 것으로 기쁨을 취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끌릴 때, 그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에만, 거룩함이 나타난다. 이런 거룩함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분출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의로움과 세상의 정의를 향한 노력이 하나가 되어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할 때, 우리가 변화와 치유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85] 교회는

---

[82]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93.

[83] 빌립보서 4:7 (개역개정).

[84] 빌립보서 4:8 (개역개정).

[85] Christine D. Pohl and Christopher L. Heuertz, *Friendship at the Margins 약한 자의 친구: 세상이 외면한 이웃들과 우정을 나누다*, trans. 박세혁 (서울: 복있는사람, 2012), 144-45.

이를 위해서 환대를 서로 경험하는 예배를 필요로 한다. 바로 이와 같은 예배가 모든 이들을 환대하는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이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성찬적 환대’를 제시한다.

Chapter Ⅴ

성찬적 환대

환대는 단순히 환영과 연민의 단계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관련되어있다. 환대는 장애를 가진 자라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바른 정의를 세우는 일이 환대이다.

코즈모폴리턴적 환대의 주요 개념인 '무조건적 환대'와 '정의 구현'의 극치는 예수의 성찬 사건이다. 예수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자리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이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보상 없이, 신분증명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 전부'를 타자에게 베푼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최후의 만찬 사건이, 종교적으로 제도화되고 교리화되어 환대의 사건으로가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로 무수한 이들을 배제하는 '적대의 사건'으로서 자리매김 하면서 '종교권력'이 행사되는 교리로 왜곡되어 버렸다.[86]

성찬적 환대의 주요 개념은, 성찬이 개인적이고 영적인 구원의 도구라는 개념을 넘어 공동체적이고 사회 책임적인 관점(정의 구현)을 수용하여 지구촌 모든 사람의 평화와 안녕까지 구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 내가 제시하는 '성찬적 환대(Eucharistic Hospility)'은 이러한 교리의 절대화를 넘어서 타자를 향한 책임성에 주목하여 교회와 예배 안에서 누구하나 소외 받거나 차별 받는 이가 없는 모두가 환영 받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이다.

---

[86]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 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247-48.

A. 성서적 관점에서의 ‘성찬적 환대’

먼저, 성서적 관점에서 성찬적 환대를 조명해 본다. 오늘날 교회에서 시행되는 성찬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 간의 마지막 만찬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유래를 살펴보면 구약의 유월절 식사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전 날 밤 나눈 식사이다. 이 식사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즉 자유와 평등이 있는 장소로 가기 위한 공동체적인 식사였다. 온 가족이 함께 하며 나누는 식사였으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길 소망하는 모든 히브리인들이 한 뜻이 되어 나누는 공동의 식사였다.

유월절 식사는 보통 때와의 식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애굽의 억압을 상징하는 노예의 식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사는 자유인의 식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즉 차별, 배제, 불평등의 식탁을 종결하는 식탁이었기 때문이다.[87]

구약성서의 사람들은 곡식과 동물들을 제사 지낸 후, 그 제물을 공동으로 나누었다(출 18:12).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의 시내산 언약 체결 후에도 공동의 식사를 나누었다(출 24:9). 이스라엘의 절기 축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풍성히 먹고 마시는 자리였다. 그 축제의 자리에는 소외나 배제되는 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특별히 구약성서는 나그네, 이방인, 고아, 과부 등과 같은 소위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신 16:11-14). 광야 공동체에게 주어진 만나와 메추라기는 남녀노소 구분과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평등한 음식이었다. 다시 말해, 광야의 식탁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평등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

[87] H. H. Rowely, *Worship in Ancient Israel: Its Forms and Meaning* (London: SPCK, 1967), 117.

신약의 식탁 공동체를 살펴 볼 때에는, 예수의 식탁 교제를 이해하면 되겠다. 특별히 성찬의 제정과 관련된 성서 기록은 네 군데(마 26:26-40, 막 14:22-26, 눅 22:14-22, 고전 11:23-26)다. 예수는 먹고 마심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셨다. 예수의 식탁 교제는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의 실현'에 아주 중요한 배경을 제공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고픈 자들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풍성한 음식이 있는 잔치에 비유했다(눅 11:2-3). 예수의 식탁 교제의 특징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등 그 어떤 차별 없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평등의 식탁교제자리였다. 이런 성서적 의미에서 오늘날 시행되는 교회의 성찬을 바라볼 때에, 성찬 자리에서 소외되고 차별 당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B. 교육적 관점에서의 '성찬적 환대'

성찬적 환대를 교육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 이후인 주후 1 세기 말의 예배에 대해 알 수 있는 디다케 자료를 검토해 본다. '디다케'는 헬라어로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디다케의 성찬과 관련된 기록이다:

> (9 장) 성찬 감사기도
> 감사에 관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감사드리시오. 우선 잔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오. 우리 아버지, 당신 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신 대로 당신 종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에 대해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히. 빵에 대해 이렇게 하시오. 우리 아버지, 당신 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과 지식에 대해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히. 이 빵조각이 산들 위해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 교회도 땅 끝에서부터 당신 나라로 모여들게 하소서. 영광과 권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이들이 아니면, 아무도 여러분의 감사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88]

디다케 성찬 관련을 분석해 보면, 첫째, 성찬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자격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이들'이다. 이것은 신앙인들 간에 구별을 짓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 짓기 위함이다. 성찬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리라는 것이다.

둘째, "이 빵조각이 산들 위해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 교회도 땅 끝에서부터 당신 나라로 모여들게 하소서."라는 구절을 통해 성찬의 빵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하는 것임을 배우게 한다. 이것은 바울이 고전 10:17 절에서 말한 '한 떡'을 상기시킨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모여든 사람들은 인종, 문화, 지위, 성별을 뛰어넘어 성찬의 떡을 받으며 예수 안에서 평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감사의 고백이다. 디다케 성찬 관련 기록을 보면 당신의 몸을 인간을 위해 내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고백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지식 주심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우리가 '모여 하나'가 되길 원하는 기도의 내용도 나온다. 성찬적 환대의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 주신 예수께, 서로 간에 나눌 수 있음에,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

[88] 정양모,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 (서울: 분도출판사, 1993), 65-70.

C. 예배 신학적 관점에서의 ‘성찬적 환대’

성찬의 다른 용어로 ‘Communion’란 단어가 사용된다. 즉 성찬 안에서 교제와 연합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인류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항상 그 안에 갈등과 분열 문제들이 있었다. 인간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 갈등과 분열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 성찬이 교회 공동체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첫째, 인간은 성찬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합을 이루게 된다. 둘째, 성찬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다. 즉 성찬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화해되는 것이다. 김운용은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화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화해는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헬라어 용어 중, ‘카탈라센’에 가장 가까운 단어다. 바울에 의하면 화해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용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고후 5:18).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화해하도록 만드는 분이시며, 이 사역을 위해 우리를 화해의 사역자들로 부르셨다(롬 11:15; 고후 5:18-19).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화해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89]

성찬을 통해 인간은 개개인의 양심을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거슬렀던 방식들에 대해 후회하면서 자기반성의 형식으로 자신을 새롭게 해나간다. 거기서 연합과 화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차별이 있는 식사를 비난했다:

>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89] James F. White, *Sacraments as God’s self Giving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trans. 김운용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6), 165.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90]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빈부의 격차를 통해 일어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수치와 모욕을 교회 구성원 간에 연합을 파괴하는 행위로 본 것이다. 바울이 이해하는 성찬 신학은 적어도 먹고 마심을 통해 누구하나 소외와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연합)가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예배 신학적 관점에서의 성찬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연합이다.

그렇다면 '성찬적 환대' 안에서 연합을 기대하며 갖는 가치는 무엇일까? 첫째,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성찬에 참여한 이들이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장애 등을 넘어 하나 되는 것이다. 모든 불평등을 넘어 진정한 연합을 구현하는 것이 '성찬적 환대'의 목표이며 의미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이 연합이라는 개념을 깨닫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이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일이 된다.

둘째,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회복이다. 세계 100 인의 행복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서은국은 *행복의 기원*이라는 저서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말한다.[91]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이다.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가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그들과 마주 앉아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함께 주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는 성찬의 자리는 기쁨과 감사의 회복이라는 가치를 갖게 된다.	셋째, 성찬적 환대에서 가지는

---

[90] 고린도전서 11:20-22 (개역개정).

[91] 서은국, *행복의 기원: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생존과 번식 행복은 진화의 산물이다* (서울: 21 세기북스, 2014), 194.

연합의 가치는 교회와 세상의 연합이다. 나누어지는 떡은 성찬을 나눈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것을 나누어 먹은 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다. 성찬의 의미는 거기서 머무름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으로 나아가는 사명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선교적 사명이 성찬의 자리에 담기는 것이다.

이상으로 성서적 관점, 교육적 관점, 예배 신학적 관점으로의 '성찬적 환대'를 고찰해 보았다. 다음으로 '성찬적 환대'가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 보도록 한다.

D. '성찬적 환대'의 실천적 제언

D.1. 교회: 교리의 절대화를 넘어 책임성으로

성찬적 환대를 위해서는 성도 모두가 '예수의 시선'을 가져야 하고, 우선적으로 목회자와 예배위원들의 '시선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시선은 나를 향했던 시선에서 '타자를 향한 시선'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본회퍼는 *Christ the center* 에서 '나를 위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예수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가 아니고 '누구?'라는 질문이어야 하고, 이 질문의 답은 바로 나를 위한 존재라는 것이다.[92] 여기서 예수는 나에게 바로 타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와 전혀 다른 존재인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 이것이 바로 타자를 위한 존재인 예수의 실천이다. 예수는 다름 아닌 나를 위해, 즉 타자를 위해 인간이 되었고, 죽음을 모르는 그가

[92] Dietrich Bonhoeffer, *Werke 그리스도론*, trans. 유석성 (서울: 기독교서회, 2010), 3.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예수의 삶은 오직 타자를 위함이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이고, 타자를 위해 살았던 예수 자신이 바로 계시이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한다.

본회퍼는 이 계시가 교회에서 사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행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현재적 선포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사고된다.”[93] 본회퍼에게 있어서 교회는 현존하는 그리스도이시며,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회퍼는 1932 년 강의를 통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온 세상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언할 위임을 받았다. 온 세상이 교회의 교구이다.”[94]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현존이 교회의 본질을 가리킨다면,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교회의 삶의 원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선포되는 설교, 교제, 성례전, 교육을 포함한 모든 행위들이 중요하다. 이처럼 본회퍼에게 계시와 교회의 신학은 타자를 중심에 두며 타자를 지향하고 있다.

책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노동자, 농부 군인들을 위해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가?”[95]라고 질문한다. 기독교인들에게 윤리적 도전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라는 의미이다. 박종균은 이러한 본회퍼의 책임윤리를 ‘대리사상’에 근간을 둔다고 주장한다.[96] 즉 그리스도는 세상 가운데서 타락한 인간을

---

[93] Quoted in Dietrich Bonhoeffer (1963). Quoted in 배경임, “본회퍼와 레비나스의 타자성 연구: 다문화사회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연구* vol. 6, no. 4 (2017): 118.

[94] Gesammelte Schriften Band Ⅰ. Okumen. Briefe, Aufsatze, Dokumente 1928 bis 1942(1969), 159, quoted in 강성영, “디트리히 본회퍼의 ‘교회의 현실성’과 타자의 윤리,” *신학연구* vol. 65 (2014): 103.

[95] Dietrich Bonhoeffer, *Nachfolge 나를 따르라*, trans. 손규태 and 이신건 (서울: 기독교서회, 2010), 3.

[96] 박종균,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책임윤리,” *기독교사회윤리* vol. 16 (2008): 254.

위한 존재이므로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존재에 참여함으로써 타자가 당하는 고난의 현실에 참여해야 한다. 타자들이 느끼고 있는 갈등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개인적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적 치유, 회복이고 온전함을 지향하는 태도이다.

또한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이웃에 대해 그리스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고 말해야 하며 이웃과 슬픔도 같이 해야 한다. "나의 짐은 타자에 의해서 지워진다. 그들의 힘은 나의 힘이다."[97] "타자를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용서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할 일이다."[98] 결국 문제는 우리가 타자를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본회퍼는 "타자를 위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어떠한 행복의 요구도 단념하고, 날마다의 일에서 대속적으로 중보하고 선과 영광에 대한 모든 요구, 아니 삶 자체까지도 포기함을 포함한다."[99]고 말한다. 그래서 본회퍼가 보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 때문에 타자를 위해 개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정한 자들이다.

질적 연구 결과에서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의 부재들이 있었다. 그들을 위한 시스템의 부재가 있었다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시선이 머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제 교회는 타자를 위해 시선을 향해야 한다. 그때에 약자나 장애인들을 바라 볼 수 있게 되며 그들을 위한 시스템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97] Dietrich Bonhoeffer, *The Communion of Saints* (New York: Harper & Row, 1963), 127 *quoted in* 박종균,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책임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 16 집(2008), 256.

[98] Dietrich Bonhoeffer, *The Communion of Saints* , 130 *quoted in* 박종균,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책임윤리,", 256.

[99] Dietrich Bonhoeffer, *The Communion of Saints* (New York: Harper & Row, 1963), 131 *quoted in* 박종균,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책임윤리," 256.

D.2. 성찬 초청의 말씀 강화

성찬 순서의 시작인 '초청의 말씀' 중에 집례자는 현재 우리가 처한 불의와 불평등(차별)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와 현실 삶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제공함으로써 회중으로 하여금 그들의 삶이 교회와 세상에서 실천적 삶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초청의 말씀은 회중으로 하여금 현실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로의 초대이다. 그러나 오늘날 성찬을 집례할 때 집례자는 지나치게 성찬 예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보니 교회가 나누는 성찬의 의미가 현대 사회와 회중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겨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동기부여를 전혀 하지 못한다.[100]

*기독교대한감리회 예배 예식서*를 통해 나타난 한국 교회 성찬의 자리 역시 회중들의 삶의 경험과 이슈들, 장애인들에 관한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남성 중심적, 집례자 중심적 성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예배 예식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찬 예문 중에서 회중의 삶의 문제와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인도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 초청의 말씀: 보좌 위원 중
>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의 죄 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합시다.[101]

이제 각 교단은 예배 예식서를 개정할 때, 사회적 이슈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초청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박상길이 그의 논문에서 다름과 같은 초청의 말씀을 제안한다:

> 초청의 말씀: 집례자
> (필요할시 집례자나 보좌위원은 불의하고 불평등한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 말하고 회중의 참여를 요청한다)

---

[100] 박상길, "정의의 실현으로서의 성찬에 관한 연구" (Ph.D. diss.,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139.
[101] 예문연구위원회, *예문 1* (서울: 도서출판 kmc, 2006), 58.

>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 것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또한 주님의 만찬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과 연합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해서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부조리와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사회적인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세상의 불의와 불평등에 맞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마음에 새기고, 정의가 실현되는 삶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청입니다.[102]

박해정은 교회의 예배가 어느 누구나가 함께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수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배는 철저하게 수용적(all inclusive)이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예배는 여전히 배타적이다."[103] 성찬 초청의 말씀을 통해 소외 받고 차별 받는 이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그 자리의 은혜로만 그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감이 필요하다.

D.3. 형식화와 객관화 넘어의 성찬

질적 연구 결과에서 살펴보듯이 장애인 성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다. 그 중 주요인이 '배려하지 않음'이었다. 장애인 성도들에게 제한되는 여러 가지 교회 시스템과 예배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찬 예식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박해정은 "성찬의 형식화로부터의 탈출은 성찬 예문을 착실히 읽고 준비된 빵과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성찬의 방식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

[102] 박상길, "정의의 실현으로서의 성찬에 관한 연구," 140-41.

[103] 박해정, Conflict, Healing and Transformation through Preaching and Worship 강의 중, 06/08/2017 클레어몬트 신학교 강의실 201 호에서

한다."[104]고 말한다. 예식서에 따라 기도문을 읽고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고 마시는 것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는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어쩌면 오늘날 젊은이들에게까지도 말이다. 이제 개신교는 성찬 예식을 형식적인 면에서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박해정은 성찬의 다양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상징적 요소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즉 성찬 환경을 늘 새롭게 하라는 것이다. 성찬 환경에 변화를 줌으로 절기에 맞는 상징적 요소들을 부각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별잔을 공동잔을 사용함으로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덩어리 빵을 사용함으로 회중들이 보는 가운데 이를 찢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찢기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어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예전 음악의 선택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다. 비록 성찬 찬송들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CCM 을 사용하거나 좀 더 다양한 음악을 사용함으로 성찬 참여자들이 보다 밝은 모습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수찬의 방법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미 서구교회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빵과 포도주의 분급을 앉아서 기다릴 때, 성찬 찬송을 부르며 참여하는 방식이다. 분급 시 부르는 찬송의 성격에 따라서 성찬의 성격이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넷째, 집례자의 성찬제정사 암기이다. 이것은 회중들이 집례자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의 집례자들이 예식서에 시선이 머물러 있기에 성찬의 극적인 부분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104] 박해정, "성찬,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기독교사상* vol. 652 (2013): 49.

된다. 가급적 집례자들은 성찬 참여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암기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다.[105]

또한 박해정은 성찬 예식이 객관화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성찬을 위해 시급하다고 말한다.[106]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참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 성찬의 경험을 개인화하라는 것이다. 수찬자들이 성찬상으로 나와 분병에 참여할 경우, 집례자가 바로 수찬자에게 빵을 건네주지 않고, 빵을 눈 높이로 올리면, 자연스럽게 수찬자의 시선이 집례자에게 향하게 된다. 이때, 집례자는 수찬자의 이름을 부르면, "이는 아무개를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분병하면, 수찬자는 매우 개인적이며 주관적 참여자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둘째, 치유 및 안수 기도의 시간으로 안내하라는 것이다. 성찬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성례이기 때문에, 성찬에 나와 분병에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에게 치유의 기도를 받기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분병 후에 제단에 무릎을 꿇고 치유의 안수기도를 받도록 한다. 셋째, 개인 기도시간을 통하여 결단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단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을 배려할 수도 있으며, 모든 성도들이 수찬 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절대 침묵의 기도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공동체성의 고양을 위해 함께 고백하는 것이다. 이는 성찬 이전과 이후에 모두 행할 수 있는 순서이다.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변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거나 평화의 인사를 할 수 있고, 성찬 후 감사기도를 드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을 할 수 있다. 여건이

105 Ibid., 50.
106 Ibid., 51.

된다면 큰 원을 이루고 서로 손을 잡고 찬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107]

이러한 형식과 객관화를 넘어선 성찬의 다양화는 장애인 성도들의 소외감과 차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D.4.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성찬 분급 참여

현재 한국 교회에서 성찬을 실행할 때, 집례자는 목사, 그리고 성찬을 돕는 성찬 보좌는 대부분 장로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성찬적 환대의 핵심은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모든 회중이 그 앞에서는 어떤 차별과 불평등이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자리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회중들에게 베풀어지는 성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사회적인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성찬 분급자로 세우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감리교신학대학교 나눔의 예전학회에서 실시한 예배 컨퍼런스는 이 신학적 해석과 시도를 실현시킨 훌륭한 사례라고 소개할 수 있다. 성령강림주일 예배로 기획된 예배 후반부 성찬은 분급처를 세 군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그 중 한 곳의 포도주 분급을 담당했던 성찬보좌위원은 예전학회원인 지체장애인 이상근(가명) 전도사였다. 짧은 이동거리였으나 몸이 불편한 탓에 바닥에 적지 않은 포도주를 쏟았다. 그러나 그 모습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전도사가 있는 분급처로 성찬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모든 예배 후 전체 질의응답의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분급을 담당했던

---

[107] Ibid., 51-52.

장애인 당사자는 오히려 많은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장애인에게 분급을 맡기면서 그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가?”, “이 모든 과정이 또다른 폭력으로 비춰지지 않는가?”라는 소수의 의견에, 분급에 참가했던 장애인과 절대 다수의 참여자들이 소외된 자들의 친구 되어 주신 예수의 흔적과 향기를 느꼈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108] 다양한 계층을 성찬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의 문을 여는 시도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 적어도 그 순간은 예수의 심정과 마음을 깊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경험 안에는 단순한 먹고 마심의 예전의 의미를 넘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과 불균형의 문제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D.5. 고통 받는 이웃을 향한 성찬 봉헌의 나눔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물이 고통 받는 이웃을 향해 재분배가 된다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 예배에는 봉헌 시간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성찬을 위한 봉헌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상길은 그의 논문 *정의의 실현으로서의 성찬에 관한 연구*에서 저스틴의 작품을 분석하여 성찬 예전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예전은 성찬 시간에 봉헌이 있었으며, 모인 회중은 그것이 돈이든 물건이든 하나님께 드렸고 성찬 후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병자나 약자, 가난한 자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말한다.[109]

[108] 종교감리교회에서 2018 년 2 월 7 일 열린 감리교신학대학교 나눔의 예전학회 2018 예배컨퍼런스(지도교수 박해정)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라!” 주제로 드린 성령강림주일 예배

[109] 박상길, “정의의 실현으로서의 성찬에 관한 연구,” 148.

현재 한국교회의 성찬은 이미 차려진 빵과 포도주를 받기만 하고, 성찬을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리는 예식은 있지 않다. 성찬적 환대를 위해 이제 한국교회 현장에서 성찬을 위한 봉헌물을 드리는 시간이 마련되고, 그 봉헌물이 소외되고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향해 베풀어지기를 소망한다. 미국 감리교 성찬 예전에는 성찬 이후 기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진술하고 있다:

>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주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로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온 가슴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110]

성찬을 통해 소외되고 차별 받은 이들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동기부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오늘날 세상은 복음을 듣기 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보고 싶어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전적으로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힘을 공급 받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차별과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성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기억하라는 것은, 단지 구주로서 자신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생애 동안 소외당하는 자들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셨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다.

---

[110]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We Gather Together* (Nashville: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80), 11, quoted in 박상길, "정의의 실현으로서의 성찬에 관한 연구," 159.

Ⅵ. 결론 및 제언

교회는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는 곳이다. 따라서 장애인도 분명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다. 차별과 소외로 인한 아픔을 그들이 경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교회의 관심은 이들에게 있지 않았다. 오히려 교회는 이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다. 교회를 찾는 장애인들은 이와 같은 교회의 상황과 구조 속에서 폭력과 억압과 차별의 아픔에 오랜 기간 노출되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의 신앙생활을 분석함으로써 32 개의 주제와 11 개의 주제군, 3 개의 범주를 도출했다. 이렇게 도출된 심층면담 결과를 코즈모폴리턴 환대 신학적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증하였다. 첫째, 장애인들은 점자시스템의 부재, 휠체어 통행 시스템의 부재, 휴식공간의 부재와 같은 교회의 환경(시스템)문제로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었다. 둘째, 장애인들은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 시간 문제, 좌석, 잘못된 환대, 임직에서의 소외, 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프로그램의 부재와 같은 주제들 가운데서 깊은 소외를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장애인 성도들은 여러 가지 차별로 인해 수치심, 분노, 체념적 수용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나는 교회 공동체가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코즈모폴리턴 시선과 예수의 시선을 가지고 교회가 환대의 자리에 다시 서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차별과 소외와 억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요, 환대해야 할 대상임을 몸소 보이셨다. 특히 예수의 수많은 사역과 신앙의 모델 중에서 한 식탁으로 모든 이들을 초청하여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제 예수처럼 장애인을 환대하기 위한, 아니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코즈모폴리턴적 성찬을 연구하여 행해야 할 때이다. 성찬 초청의 말씀을 강화하고 기존의 형식화 된 성찬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사회적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성찬적 환대가 바로 연구의 결과로 나타났다.

성찬적 환대는 새로운 성찬의 기능이 결코 아니다. 성찬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정신이다. 성찬은 그 자체로 환대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교육적, 신앙적, 예배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성찬 안에서 나타난 환대의 가치가 회복되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이는 한국 교회의 성찬에 문제요. 예배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였다. 교회 안에서 성찬을 경험하는 교인들은 세대, 직분, 세례의 유무등의 다양한 차별적 요인으로 인해 성찬 안에서 차별받아 왔다.

성찬적 환대는 궁극적으로 조건적 포용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사람다운 권리를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의다. 본질적으로 이 연구는 장애인 소외에서 출발했지만 장애인들의 차별과 배제와 시스템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대에 걸친 교회 차별의 극복의 키를 성찬적 환대가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우리는 이제 계층(class), 인종(race), 능력(ability)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차별, 불평등, 소외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에 배고픈 것이 무엇인가? 목마른 것이 무엇인가? 헐벗은 것이 무엇인가? 갇힌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가면서 사회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지 않을 것이다. 무수히 벌어지는 일들을 눈 감고 관심 끄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선 곳에서 이것들을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단순한 신앙고백을 넘어 나는 타자와 어땠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관심했는가? 돌봤는가? 사랑했는가?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라 언급하신 것도 결국 타자에 대한 관계이다.[111]

교회는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회복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향점은 공동체성의 회복을 향해야 한다. 이는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 장애인들의 정확한 요청은 "우리는 차별을 반대하지만, 우리의 다름은 인정해 달라"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동질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평등하게 인정하라는 것이다.

정동제일교회는 아직 장애인 선교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성찬에 있어서도 특별한 배려도 없다. 하지만, 교회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갖추어가고 있다. 장애인 주차장의 도우미 벨, 교회의 모든 시설물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점자 안내판, 휠체어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넓은 복도와 화장실, 점자 보도블록 등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이번 성전 보수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작은 변화들이 성찬적 환대의 회복과 평등성의 인정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해본다.

현재 내 조카는 학교에 다니는 것, 수영 및 운동, 방과 후 놀이치료를 다니는 것을 싫어하며 저항한다. 아마도 조카에게는 집 이외에 어떤 곳도 편하지 않은 낯선 세상인 듯하다. 하지만,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은 거부하지 않는다. 예배는 물론이고, 그 외에 교회에서 하는 여러 활동들에 잘 참여하고 있다. 그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장애인 복지와 선교에 목회자와 전교인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다. 조카가 교회를 거부하지 않는 오늘은 소외된 자들을 향한 교회

---

[111] 오현선, Claremont Transforming Self and Educational Ministry in the Multicultural Korean, 01/10/2018 목원대학교 신학관 강의실 410 호 강의 중, 개인적인 생각을 옮김.

공동체의 인식의 변화와 수용의 노력이 만들어 낸 성과라 믿는다. 이러한 노력들이 나의 목회 현장과 나아가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뤄지는 그날을 꿈꾸며, 조카가 장애인이라는 인식조차 갖지 않는 세상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뤄지기를 기도한다.

부록: 연구 참여 동의서(Appendix A: Informed Consent Form)

귀하는 “한국교회의 장애인 소외에 관한 질적 연구-정동제일교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하의 연구에 참여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91711)의 박해정/김남중 교수의 지도 아래 강호근에 의해 수행됩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교수님과 연락하기를 원하신다면 박해정 박사 (hpark@mtu.ac.kr/***-****-****), 김남중 박사 (njkim@cst.edu/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동제일 교회 안에 있는 장애인들이 차별과 소외를 느끼게 하는 예배 구조, 예배 환경, 교회 시설 문제를 분석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층 면담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참여는 교회 안에서 ‘코즈모폴리너티즘 관점의 환대’를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연구에 대하여 아래에 있는 연구자의 연락처로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강호근 hogunii@hanmail.net/***-****-****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기 위하여 18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귀하는 약 1 시간가량 심층 면담에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면담이 진행 과정 동안 면담내용은 녹음되고 필사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이 연구에 참여하시는 목적은, 모두가 환대 받고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귀하는 연구에 참여함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장애인을 향한 교회공동체의 변화의

의지'와 '성찬적 환대 예배에 대한 정보'를 먼저 받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구참여에 대한 알려진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면담 도중에 불안감, 슬픔, 피로 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즉시 면담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는 연구참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이름, 이메일, 다른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자료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 보관될 것입니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제한된 수의 연구 관련자들이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박해정/김남중 교수

연구 결과가 출판되거나 학술대회에서 토론될 때, 귀하의 동의를 사전에 받을 것이며, 사정 동의 후 귀하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 어떤 정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교육적인 목적으로 귀하의 연구참여에 대한 사진, 비디오, 녹음 등이 사용된다면 귀하의 신분은 보호되고 가명이 사용됩니다. 귀하와 관련된 정보는 본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만 보관되며 후에는 파기됩니다.

귀하의 연구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때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참여 철회는 귀하가 가지고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연구참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참여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이메일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면 연구자 강호근의 전화번호 ***-****-**** 혹은 hogunii@hanmail.net 로 연락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 왔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연구번호, IRB 회장이 연구번호를 연구자에게 부여할 것입니다]입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심사위원회 회장의 연락처인 ***-****-**** 혹은 viastar@hanmail.net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할 경우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____

연구참여자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연구참여자의 서명 *날짜*

____

주소

____

전화 *이메일*

증인의 서명

증인으로서의 나의 서명은 나와 동석 하에 연구참여자가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 동의서에 서명했음을 증명합니다.

____

증인의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증인의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연구자 서명 *날짜*

귀하의 기록을 위하여 이 문서의 사본이 귀하에게 제공됩니다.

참고문헌 Bibliography

국내도서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______.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강영안, 구교형, 권연경, 김근주, 김세윤, 김응교, 김호경, 김회권, 박득훈, 박영돈, 신경규, 신광은, 이진오, 정재영, 조성돈, 주도홍, 지강유철, 차정식, 최병석, 한완상, and 황병구.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김영선. *참된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Ⅰ: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2.

______. *질적연구방법론 Ⅱ: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박흥순, 강성열, 권현희, 류성환, 오경석, 오현선, 유봉애, 최영일, 한신애. *다문화교육 매뉴얼 – 다문화사회 이야기 마당* 서울: 꿈꾸는터, 2017.

서은국. *행복의 기원: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생존과 번식 행복은 진화의 산물이다.* 서울: 21 세기북스, 2014.

양희송. *다시, 프로테스탄트: 한국교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서울: 복있는사람, 2012.

예문연구위원회. *예문 1.* 서울: 도서출판 kmc, 2006.

이계윤. *장애인 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특수교육연구소, 1996.

정문길. *소외론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정양모.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 서울: 분도출판사, 199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 장애인과 일반인의 의식.*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01.

해외도서

Rowley, Henry Harold. *Worship in Ancient Israel: Its Forms and Meaning*. London: SPCK, 1967.

Tillich, Paul. *Systematic Theology Ⅱ*.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번역서

Bonhoeffer, Dietrich. *Werke 그리스도론.* Translated by 유석성. 서울: 기독교서회, 2010.

________________. *Nachfolge 나를 따르라*. Translated by 손규태 and 이신건. 서울: 기독교서회, 2010.

Brunner, Emil. *Gerechtigkeit 정의와 사회 질서.* Translated by 전택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Niebuhr, Reinhold. *Beyond Tragedy 비극을 넘어서.* Translated by 김쾌상. 서울: 전망사, 1984.

Pohl, Christine D. and Christopher L. Heuertz. *Friendship at the Margins 약한 자의 친구: 세상이 외면한 이웃들과 우정을 나누다.* Translated by 박세혁. 서울: 복있는사람, 2012.

Stott, John.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Translated by 정옥배. 서울: IVP, 2005.

Wendell, Susan. *The Rejected Body: feminist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disability 거부당한 몸.* Translated by 강진영, 김은정 and 황지성. 서울: 그린비, 2013.

White, James F. *Sacraments as God's self Giving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Translated by 김운용.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6.

학술지 논문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 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기독교사상* vol. 668 (August 2014): 234-50.

김애령. "다른 목소리 듣기-말하는 주체와 들리지 않는 이방성," *한국여성철학* vol. 17 (2012): 33-60.

박종균. “레비나스와 본회퍼의 책임윤리.” *기독교사회윤리* vol. 16 (2008): 239-65.

박해정. “성찬,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기독교사상 vol.652* (2013): 44-52.

배경임. “본회퍼와 레비나스의 타자성 연구: 다문화사회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연구* vol. 6, no. 4 (2017): 115-31.

백소영. “기독교 안에 깃든 차별의 민낯과 그늘들.” *기독교사상* vol. 673 (2015): 34-41.

신동천. “장애인 가정을 위한 기독교교육.” Ph.D. diss. 안양대학원, 2015.

양혜린, 고윤정, 박연미, 이혜란. “차별경험과 자기효능감이 후천적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조건부 과정 모델링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의 역할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vol. 27, no. 3 (2017): 89-112.

이회능.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교육에 관한 기독교적 접근.” *기독교교육정보* vol. 9 (2004): 113-51.

정성민. “틸리히 신학에 있어서의 소외 문제와 그 해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 34 no. 1 (2004): 241-67.

정윤길. “스피박의 서발턴 이론과 소통의 문제.” *인문과학연구* vol. 37 (2011): 219-234.

전지혜. “장애학적 관점에서의 사회변화와 한국 장애인 선교의 방향.” *선교와 신학* vol. 34 (2014): 239-67.

학위논문

김수진. “장애인복지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미간행 M.A. thesis,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5.

박상길. “정의의 실현으로서의 성찬에 관한 연구.” Ph.D. diss.,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신동천. “장애인 가정을 위한 기독교교육.” Ph.D. diss., 안양대학원, 2015.

이명희. “장애인들의 자존감과 신앙 성숙도 관한 연구.” M.A. thesis,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9.

이승현. "한국 교인들의 교회적 가치관이 장애인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M.A. thesis, 감신대학교 대학원, 2003.

최석주. "지역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8.

하은철. "한국교회의 장애인을 위한 목회적 돌봄 방안 연구." M.A. thesis,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2013.

웹사이트

계룡시의회. "장애인인권헌장." *계룡시웹사이트*. https://www.gyeryong.go.kr/html/kr/life/life_060501.html (Accessed October 13, 2018).

김태선.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가?" *대전투데이*, November 18, 2018.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23671#09SA (Accessed September 24, 2018).

김해용.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하지 않는 10 가지 이유." *참좋은군사*, March 30, 2006. https://blog.naver.com/jjkkhh2232/50002948923 (Accessed November 22, 2018).

Combe, Brian. "Why we are disabled people, not people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Arts Online*, July 25, 2015, https://www.disabilityartsonline.org.uk/why-we-are-disabled-people-not-people-with-disabilities (Accessed March 14, 2019).

조성돈. "국민들이 기독교에 답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March 27, 2018. https://cemk.org/7926/ (Accessed September 14, 20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의 상징, 흰 지팡이를 아시나요?"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August 31, 2016, https://blog.naver.com/kead1/220800517484, (Accessed October 11, 2018).